

수능국어 임구권의

수능특강 분석서 [6평 대비 고전시가]

회파 국어 연구소 著

중요도 : 중

수능특강 34p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늑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셔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이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삶의 고뇌와 비애 /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 ① 고려가요의 특징: 3음보, 분연체(분장체), 후렴구(여음구)
- ②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다[Ex. 우리라 새여, 사스미 짚대에 올라셔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 ③ 대구적 표현이 나타난다.

이상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의 대비가 나타난다.
 운명론적 시련이 나타난다.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은 화자부터 구절까지 '하나'의 정답으로 떨어지지 않는 작품이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해석은 <보기> 지문이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1연>은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인 '청산'에 살고 싶거나 살아야만 한다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악기 소리를 입으로 따라 한 것이다. 청산별곡은 원래 노래였음을 상기하자.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2연>에서 화자는 새가 우는 것을 보며 자신의 시름 많은 처지를 상기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다.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3연>에서 화자는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바라본다. 밭을 간다는 것은 속세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화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쓴 지 오래되어 이끼가 낀 쟁기이다. 이는 화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을 동경하여 속세를 버리고 청산으로 들어온 화자인 경우는 농기구를 손에 쥘 정도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생겼다는 것이다. 속세로부터 쫓겨난 유랑민 화자인 경우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저 속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이링공 더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4연>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이다. 화자에게 삶은 고통이 되었다. 화자가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이와 함께 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가 결핍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옆구리가 시린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빈자리를 느끼기 때문에 시리다고 느끼는 것이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5연>의 주제는 '운명론적인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5연에서 화자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 울어야 했다. 이러한 화자가 겪는 상황은 운명론적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화자의 체념적 정서이다.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화자는 그저 울기만 할 뿐, 그러한 시련에 체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1연>과 <6연>은 화자가 사는 공간이 나타난다. 이는 먹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살어리랏다"가 '살겠노라'일 경우 바다는 화자가 동경하는 공간이지만 '살아야만 한다'일 경우 일상과 격리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공간에 나는 것들을 투박하게 '캐서 먹는' 것이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7연>은 학자마다 해석이 상이하므로, <1연>과 마찬가지로 각 해석마다 다르게 내포되어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꼭 알아두어야 한다.

1. '사름미'의 오기로 본 경우, 연회를 즐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화자가 음악과 연회를 통해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상황으로 해석할 경우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8연>의 화자는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함으로써 <7연>의 사슴과 만나거나 연회를 즐기는 상상으로 도피를 택한다. 이 연에서 '술'은 화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각 연의 맥락이 유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전체 작품이 짜여져 있음을 이해할 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이 작품은 고려 속요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악장가사』에 전문이 실려 있고, 『시용향악보』에는 1연과 곡조가 실려 있으나, 이러한 옛 문헌에서 작품에 대한 해설은 찾을 수 없다. 전체 8연의 형식으로,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다. 정형적 율격, 시구의 반복, 울림소리의 반복적 사용으로 음악성이 두드러진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보기에 따르면 청산별곡은 고려가요의 형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다른 고려가요들과는 달리 삶의 비애와 고뇌를 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작가의 신분계층이나 제작 동기, 작품 성격, 작중 화자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정설이 세워지지 않은 채 논란이 거듭되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살어리랏다', '가던 새 본다',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도 있고 가능한 해석을 모두 물어볼 수도 있으니 다양한 해석을 숙지해야 한다. '이 구절에는 이런 뜻 3개'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잘 연결되는 해석 하나씩 만들어서 각기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 외울 것을 추천한다.

중요도 : 중

수능특강 44p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입에 대한 그리움

- ❶ 반복법이 나타나 있다.
- ❷ 고려가요의 특징: 3음보, 분연체, 후렴구
- ❸ 의문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1연>에서는 입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제시되면 화자가 슬퍼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슬픔, 상실감 등의 정서를 해석할 수 있다.

<2연>의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에서는 화자의 입을 향한 원망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원망은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의 반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3연>에서는 화자가 하고 싶은 것과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떠나는 입을 붙잡아 두고 싶다. 그러나 입이 그런 행동에 서운함을 느낄까 두려워한다. 사랑에 빠지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4연>에서 ‘설은 님’은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입이면서 동시에 화자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자는 입을 보내면서도 가시는 듯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며 자신의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즉, 임과의 재회를 꿈꾸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보 기>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들은 시간 의식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 왔던 시간을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방의 지난날에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도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대, 사랑하는 상대방을 곁에 두고픈 소망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곡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사랑하는 상대방을 곁에 두고픈 소망’을 드러낸다.

형식은 모두 4연으로 된 연장체(聯章體)로서, 매 연은 2행으로, 각 행은 3음보격의 율격을 이루고 있다. 각 연이 끝날 때마다 ‘위 증중가 태평성대(太平盛代)’라는 후렴구가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 행의 제3음보가 기준 음절 수보다 적은 음보(音步)일 경우 의미론적 긴밀성과는 상관없이 ‘나는’이라는 투식어(套式語)가 맨 끝에 덧붙여 있다.

이러한 투식어와 후렴구를 모두 제외하고 가사를 재편해 보면, 4행을 1연으로 하는 2연의 민요체 가요가 되는데, 이것이 이 노래의 원가(原歌)였음을 알 수 있다. 즉, 4행체를 기조로 하는 민요였던 것이 고려의 궁중음악인 속악으로 개편되면서 투식어와 후렴구가 첨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작품의 원가가 가지는 의미의 지향과 후렴구의 의미가 호응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민요로서의 원가는 서정적 자아가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비극적 정조(情調)로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궁중음악인 속악으로 수용되면서 그러한 비극적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후렴구를 덧붙여 왕실의 궁정 음악으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 : 극상

수능특강 47p 몽천요(夢天謠)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탸다

뜻쯤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질느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니 곁의 무르리

하늘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내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워 내고
옥황께 슬와보자* 흐더니 다 묻혀야 오나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이저신 제: 어지러졌을 때

*엇던 바치: 어떤 공인(工人), 목수.

*슬와보자: 여쭙어보자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연군과 우국의 정

- ① 대구법의 활용
- ② 영탄법의 활용
- ③ 설의법의 활용
- ④ 안분지족의 태도 [Ex.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올탸다]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탸다

<몽천요>에서 꿈은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핵심 소재이다. 꿈속 상황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제1수>에서는 화자가 꿈속에서 임금에게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 화자는 임금을 만난다. 하지만 신선 무리, 즉 화자의 반대 세력이 화자와 임금이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이에 화자는 ‘두어라(=됐다, 봐둬라)’라며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만이 자신의 분수에 맞음을 말한다. 안분지족의 자세로 겸허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뜻쯤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질느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니 결의 무르리

<제2수>에서도 화자는 꿈에서 옥황상제를 만난다. 옥황상제는 웃지만(화자가 마음에 들지만) 신선 무리가 화자를 꾸짖는다. 이에 '어즈버(아이고)' 감탄 뒤에 백성의 삶을 물어볼 수 없기에 좌절하고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군선'은 자신을 질투하기만 하는 간신들로, 자신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으나 방해 세력 때문에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음에 화자는 안타까워한다.

하늘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낸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워 낸고
옥황께 슬와보자* 흐더니 다 못흐야 오나다

<제3수>에서 화자는 옥황상제에게 무너진 조정(정부)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를 할 길이 막혀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군선'과 같은 방해세력 때문에 좌절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화자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번번이 좌절됨을 보여주고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은 자신의 진의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전해지지 않는 현실에 통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인평 대군에게 보낸 전체 3수의 연시조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윤선도는 효종과 인평 대군의 사부(師傅)를 지낸 적이 있는데,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인 윤선도를 정사품 벼슬에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정삼품의 벼슬에 임명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인사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이가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윤선도는 면직되는데, 이 작품은 그가 면직되고 난 뒤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연군과 우국의 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일축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의 허탈감을 주목할 만하다. 「몽천요」 제1수에서는 꿈엔지 생시엔지 올라간 백옥경에서 옥황은 자신을 반겨주나 못 신선은 꺼린다고 하며, 그렇다면 다 그만두고 다시 오호연월(五湖烟月)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였다. 못 신선의 꺼림 속에 있느니 차라리 강호 속에 묻혀 시비를 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다.

제2수는 제1수의 부연·확장이며 은거지로 물러난 현재의 처지를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래하였다. 제1수의 옥황의 반감이 웃음으로, 군선의 꺼림이 꾸짖음으로 바뀌어 태도의 강화가 드러난다. 끝 구에서는 백억만 창생에 대한 근심을 말하여 결국 옥황은 임금이고, 군선은 조정의 신하들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제3수에는 군선은 보이지 않고 옥황만 나타난다. 역시 우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임금에게 물어보려 하였으나 채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중요도 : 상

수능특강 53p 방옹시여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제1수>

공명(功名)이 그 무엇고 헌신히 버스니로다
전원(田園)에 도라오니 미록(麋鹿)이 벗이로다
백년(百年)을 이리 지냄도 역군은(亦君恩)이로
<제2수>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호 제 송죽(松竹)만 프르렀다
풍상(風霜)섯거친 제 네 무스일 혼자 프른
두어라 내 성(性)이어나 무려 무슴호리
<제3수>

사호(四皓) | 진짓것가 유후(留候)의 기계(奇計)로다
진실(眞實)로 사호(四皓) | 면은 일정(一定)아니 나오려니
그려도 아니양호여 여씨객(呂氏客)이 되도다
<제4수>

양생(兩生)이 귀뉘런고 진실(眞實)로 고사(高士) | 로다
진(秦)쩍의 일흠 업고 한(漢)쩍의 아니나니
엇더타 숙손통(叔孫通)은 오다 말라 호는고
<제5수>

어제밤 눈 온 후(後)에 들이 조차 비최였다
눈 후(後) 들빚치 몰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천말부운(天末浮雲)은 오락가락 호는노
<제6수>

넷7에 희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무심(無心)호 저 고기를 여어 무슴 호려는다
아마도 호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더리
<제7수>

헛가레 기나자르나 기동이 기우나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자근줄 웃지마라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거신가 호노라
<제8수>

창오산(蒼梧山) 히진 후에 이비(二妃)는 어디간고
흠끼 못 주근들 셔롬이 엇더튼고
천고(千古)에 이 뜻 알니는 댓습핀가 호노라
<제9수>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원줄 알건마는
신릉군(信陵君) 무덤 우회 밧가는 줄 못 보신가
백년(百年)이 역초초(亦草草)호니 아니 놀고 엇지호리
<제10수>

신선(神仙)을 보려호고 약수(弱水)를 건너가니
옥녀금동(玉女金童)이 다나와 못논괴야
세성(歲星)이 어디 나간고 그 날인가 호노라
<제11수>

얼일샤져 봉조(鵬鳥) | 야 웃노라 저 봉조(鵬鳥) | 야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형에 범새 춤새는 못내 즐겨호는다
<제12수>

날을 못지마라 전신(前身)이 주하사(柱下史) | 회
청우(靑牛)로 나간 후(後)에 몇 힌 마니 도라온다
세간(世間)이 하 다사(多事)호니 온동만동호여
<제13수>

시비(是非)업슨 후(後) | 라 영욕(榮辱)이 다 부관(不關)타
금서(琴書)를 호튼 후(後)에 이 몸이 한가(閑暇)호다
백구(白鷗) | 야 기사(機事)를 니즘은 너와 내가 호노라
<제14수>

아침은 비 오드니 느지니는 바람이로다
천리만리(千里萬里) | 길헤 풍우(風雨)는 무스일고
두어라 황혼(黃昏)이 머릿거니 수여간들 엇더리
<제15수>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즈 그려내어
고당소벽(高堂素壁)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뉘라셔 이별(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호는고
<제16수>

한식(寒食) 비온 밤의 봄빚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호 화류(花柳)도 쎄를 아라 피엇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제17수>

어젯밤 비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이 다 피엇다
부용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두고
늘 향(向)호 기픈 시름을 못내 프러호는노
<제18수>

창(窓)밧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혜난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므스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제19수>

은강(銀缸)에 불 붉고 수로(獸爐)에 향(香)이 진지
부용(芙蓉) 기픈 장(帳)에 혼자 썬야 안자시니
엇더타 현스훈 저 경점(更點)아 즘 못 드리 호노라
<제20수>

봄이 왔다호되 소식(消息)을 모로더니
넷7에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도피야
어즈버 인간이별(人間離別)을 또 엇지 호노라
<제21수>

인간(人間)을 썬나니는 이몸이 한가(閑暇)호다
사의(簑衣)를 니미치고 조기(釣磯)로 올라가니
운노라 태공망(太公望)은 나 간 줄을 몰레라
<제22수>

남산(南山) 기픈 골에 두어 이랑 니러두고
삼신산부사약(三神山不死藥)을 다 키야 심근말이
어즈버 창해상전(滄海桑田)을 혼자 불가 호노라
<제23수>

술이 몇 가지오 청주(淸酒)와 탁주(濁酒) | 로다
먹고 취(醉)할선정 청탁(淸濁)이 관계호라
덜붉고 풍청(風淸)한 밤이여니 아니 썬들 엇드리
<제24수>

반되 불이 되다 반되지 웨 불일소냐
돌히 별이 되다 돌이지 웨 별일소냐
불인가 별인가 호니 그를 몰라 호노라
<제25수>

곳 지고 속넙 나니 시절(時節)도 변(變)호거다
풀 소게 푸른 버레 나뉘 되야 노다노다
뉘라셔 조화(造化)를 자바 천변만화(千變萬化)호노고
<제26수>

느저 날셔이고 태고(太古)스적을 못 보완자
결승(結繩)을 파(罷)호 후(後)에 세고(世故)도 하도할샤
출하로 주향(酒鄉)에 드리 이 세계(世界)를 니즈리라
<제27수>

준중(樽中)에 술이 잇고 좌상(座上)에 손이 7득
대아공문거(大兒孔文舉)를 고쳐 어더 불써이고
어즈버 세간여자(世間餘子)를 날러 뜨슴호리
<제28수>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제29수>

보허자(步虛子) 못흔 후(後)에 여민락(與民樂)을 니어 호니
우조계면조(羽調界面調)에 객흥(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상성(商聲)을 마라 히저물가 호노라
<제30수>

- 신희, 「방옹시여」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자연에 묻혀 사는 이가 느끼는 삶의 정취 / 입을 향한 그리움 / 세상에 대한 근심

- ❶ 계절감,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의 활용 [Ex. 눈, 일편명월, 초목이 다 매몰, 풍상, 달, 한식, 봄빛, 화류, 속잎, 나비]
- ❷ 인간과 자연의 대비
- ❸ 감각적 이미지의 형상화
- ❹ 의문문의 활용
- ❺ 명령문의 활용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귀 벗인가 호노라
<제1수>

공명(功名)이 귀 무엇고 헌신평 버스니로다
전원(田園)에 도라오니 미록(麋鹿)이 벗이로다
백년(百年)을 이리 지냄도 역군은(亦君恩)이로다
<제2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있는 산촌은 눈이 와서 돌길이 묻히게 된 상황을 드러내는데, 이는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속세와 단절되었기에 속세의 것이 자신에게 올 일이 없으므로 화자도 시비를 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기도 하다. 화자는 눈 때문에 인간사를 등지고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수>에서 잡고 가야 할 키워드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그로 인해 속세와 단절된 화자의 고독한 상황, 달로부터 받는 위로라고 할 수 있다.

<제2수>에서 화자는 벼슬로 얻는 부귀공명을 헌신평 버선처럼 하찮은 것이라 말한다. 오직 자연만이 자신의 벗이며 이렇게 자연과 벗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임금의 은덕임을 칭송하고 있다.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호 제 송죽(松竹)만 프르렀다
풍상(風霜)섯거친 제 네 무스일 혼자 프른
두어라 내 성(性)이여니 무러 무슴호리
<제3수>

사호(四皓) | 진짓것가 유후(留候)의 기계(奇計)로다
진실(眞實)로 사호(四皓) | 면은 일정(一定)아니 나오려니
그러도 아니양혀여 여씨객(呂氏客)이 되도다

<제4수>

양생(兩生)이 기뉘런고 진실(眞實)로 고사(高士) | 로다
진(秦)쩍의 일흠 업고 한(漢)쩍의 아니나니
엇더타 숙손통(叔孫通)은 오다 말라 호는고

<제5수>

<제3수>에서 화자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의 성질을 예찬하고 있다. 풍상이 내리치는 시련에도 송죽은 제 푸른빛을 잃지 않고 끈다. 화자는 이에 감탄하며 홀로 푸르냐고 묻지만 내 성격이라며 물어 무엇하겠냐며 묻는 것을 말아버린다.

마지막 구절은 화자 자신이 송죽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이 같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겨울에 푸른 것이 아니라 푸른 것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송죽의 대답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공통점이며,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대결 의지와 정신적 태도를 부각하는 표현이다.

<제4수>는 고사 속 인물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사에 빚대어 자신이 자연 속에 있는 상황이 숨어 지내는 것인지 도약을 위한 웅크림인지 갈등하고 있다. '아닌 양'하고 여씨객이 된다는 말로 정치적 욕심과 미련이 남아있음을 조심스레 드러낸다.

<제5수>는 고결한 두 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숙손통이 한나라의 예절을 세우고자 공자가 사는 노나라의 선비 30명을 초빙할 때 두 선비가 거절한 고사를 들어 자신을 나라의 부름을 거절한 고매한 선비로 올리고 있다.

어제밤 눈 온 후(後)에 들이 조차 비취었다
눈 후(後) 들빛치 물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천말부운(天末浮雲)은 오락가락 호는노

<제6수>

넷7에 희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무심(無心)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 호려는다
아마도 흔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더리

<제7수>

헛가레 기나자르나 기동이 기우나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자근줄 웃지마라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거신가 호노라

<제8수>

창오산(蒼梧山) 히진 후에 이비(二妃)는 어디간고
흠끼 못 주근들 셔롬이 엇더튼고
천고(千古)에 이 뜻 알니는 댓습핀가 호노라

<제9수>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원줄 알건마는
신릉군(信陵君) 무덤 우회 밧가는 줄 못 보신가
백년(百年)이 역초초(亦草草)하니 아니 놀고 엇지호리

<제10수>

<제6수>에서는 '달'과 '천말부운'이라는 시어에 주목하여야 한다. 눈의 흰색의 이미지는 달빛과 대응되며 이는 더욱 맑은 빛을 표현하게 된다. <중장>에서 이러한 흰색의 이미지는 더욱 강조된다. 이렇게 강조된 백색은 달을 수식한다. 고전에서 '달'은 대개 임금을 상징하므로 긍정적 대상에서 임금까지 두루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달과 달리 천말부운은 달을 가리는 대상이므로 달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구름=간신의 공식 또한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므로 알아놓는 것이 좋다.

<제7수>에서 화자는 넷가의 해오라기에게 욕심이 없는 물고기를 어찌하지 말고 한 물에 있으니 욕심을 버리라고 한다. 봉당 간의 싸움을 비판한 것으로 화합을 강조하는 화자의 정치적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제8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는 수간모옥에 대해 만족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간모옥은 초가삼간으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을 드러내는 시어라 할 수 있다.

<제9수>에서 화자는 고사의 두 왕비를 들어, 임금과 함께 죽지 못한 자신의 설움을 언급하고 있다. 창오산에서 해가 졌다는 것은 지존의 죽음을 의미한다.

<제10수>에서 화자는 고사를 들며 세월이 초라하니 먹고 노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자신의 상식으로 보기에선 선비가 되어 먹고 노는 것인 그릇된 행태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중국 위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도 지금은 죽어 무덤이 받을 갈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랐음을 대며 인생무상을 언급하고 있다. 자신을 그 정도의 훌륭한 정치인으로 포장하고 있음은 덤이다.

신선(神仙)을 보려호고 약수(弱水)를 건너가니
옥녀금동(玉女金童)이 다나와 못논괴야
세성(歲星)이 어디 나간고 기 날인가 호노라

<제11수>

얼일샤져 봉조(鵬鳥) | 야 웃노라 저 봉조(鵬鳥) | 야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형에 법새 춤새는 못내 즐겨호는다

<제12수>

날을 못지마라 전신(前身)이 주하사(柱下史) | 회
청우(靑牛)로 나간 후(後)에 몇 흰 마니 도라온다
세간(世間)이 하 다사(多事)하니 온동만동호여라

<제13수>

시비(是非)업슨 후(後) | 라 영욕(榮辱)이 다 부관(不關)타
금서(琴書)를 호튼 후(後)에 이 몸이 한가(閑暇)호다

백구(白鷗) | 야 기사(機事)를 니즘은 너와 낸가 흐노라
 <제14수>
 아침은 비 오드니 느지니는 바람이로다
 천리만리(千里萬里)스길헤 풍우(風雨)는 무스일고
 두어라 황혼(黃昏)이 머릿거니 수여간들 엇드리
 <제15수>

<제11수>에서 화자는 신선을 보려 하였는데, 선녀와 선동이 화자에게 세성이 어디 나갔는지 묻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굳이 나라고 언급한다. 다소 오글거린다.
 <제12수>에서 화자는 대붕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로 올라가는지 궁금해한다.
 <제13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주하사(=노자)와 동일시하며, 세상의 일이 많음을 한탄하고 있다.
 <제14수>에서 화자는 시비가 없는 이곳에서 한가함을 느끼며, 백구를 보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제15수>에서 화자는 비와 바람을 맞으며 고된 인생길에서 잠시 쉬어 가도 좋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황혼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로 사람의 생애나 나라의 운명 따위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즈 그려내여
 고당소벽(高堂素壁)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뒤라셔 이별(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흐노고
 <제16수>
 한식(寒食) 비온 밤의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쎄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제17수>
 어젯밤 비온 후(後)에 석류(石榴)곳이 다 피엿다
 부용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두고
 늘 향(向)흔 기픈 시름을 못내 프러흐노노
 <제18수>
 창(窓)밭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혜난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흐노라
 <제19수>
 은강(銀缸)에 불 붉고 수로(獸爐)에 향(香)이 진지
 부용(芙蓉) 기픈 장(帳)에 혼자 씨야 안자시니
 엇더타 현스흔 저 경점(更點)아 줌 못 드러 흐노라
 <제20수>

<제17수>에서 화자는 한식날(4월) 비 내린 뒤 봄꽃이 만개하였음을 바라본다. 꽃은 때가 되어 피어나는데 그리운 임은 그러지 않

아 화자를 슬프게 만든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자연의 대비는 단골 소재이며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임금에 대한 원망 섞인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18수>에서 화자는 비 온 후 석류꽃이 핀 것을 보고 임을 향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꽃도 시름을 표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창(窓)밭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혜난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흐노라
 <제19수>
 은강(銀缸)에 불 붉고 수로(獸爐)에 향(香)이 진지
 부용(芙蓉) 기픈 장(帳)에 혼자 씨야 안자시니
 엇더타 현스흔 저 경점(更點)아 줌 못 드러 흐노라
 <제20수>

<제19수>는 '청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돋보이는 시조이다. 이러한 청각적 이미지는 이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임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창밖의 낙엽 소리가 마치 임의 발자국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화자는 이 소리를 계기로 임을 향한 그리움이 출발되는데, 화자의 간절함은 구곡간장이라는 표현에서 응집되어 드러난다. 특히 이 착각 모티프는 다른 사설시조에서도 많이 등장하며 현대시 중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도 사용되었다.
 <제20수>에서 화자는 임이 없어 외로워하는데, 종소리까지 요란해 잠들지 못하고 있다. 화자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을 경점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종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만큼, 임에 대한 외로움에 사무쳐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봄이 왔다흐되 소식(消息)을 모로더니
 냇궂에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도괴야
 어즈버 인간이별(人間離別)을 또 엇지 흐노다
 <제21수>
 인간(人間)을 썬나니는 이몸이 한가(閑暇)흐다
 사의(簑衣)를 니미츠고 조기(釣磯)로 올라가니
 운노라 태공망(太公望)은 나 간 줄을 몰레라
 <제22수>
 남산(南山) 기픈 골에 두어 이랑 니러두고
 삼신산부사약(三神山不死藥)을 다 키야 심근말이
 어즈버 창해상전(滄海桑田)을 혼자 불가 흐노라
 <제23수>
 술이 몇 가지오 청주(淸酒)와 탁주(濁酒) | 로다
 먹고 취(醉)할선정 청탁(淸濁)이 관계흐라
 들붉고 풍청(風淸)한 밤이여니 아니 썬들 엇드리

<제24수>

반되 불이 되다 반되지 왜 불일소나
 돌히 별이 되다 돌이지 왜 별일소나
 불인가 별인가 하니 그를 몰라 흐노라

<제25수>

<제21수>에서는 드디어 봄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냇가에 있는 푸른 버들을 보며 봄이 온 것을 느끼게 된다. 요지는 봄이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봄이 된 것을 모를 정도로 그리움에 괴로워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중장>에서 ‘인간이별’을 어떻게 할까?에서 그리움의 정서는 집약된다.

<제22수>에서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끼며 낚시터로 가고 있다. 주된 정서는 한가함으로 읽을 수 있다.

<제23수>에서 화자는 불사약을 남산 깊은 곳에 심어두고 세상일의 변천을 홀로 볼까 한다. <중장>의 창해상전은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같은 사자성어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있다.

<제24수>에서 화자는 밝은 달과 시원한 바람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다. 자연을 벗 삼는 화자의 자연친화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제25수>에서 화자는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반디’가 아니라 ‘반딧불’이냐며 묻고 있다. <중장>에서는 심지어 돌이 왜 돌이 아니라 별인지 묻고 있다. <24수>에서 과음한 여파인 것 같다. 연시조를 따로따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다소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만 연시조 안의 시조로서 이 작품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가수가 낸 앨범의 수록곡이 전부 맘에 들지는 않잖은가?

곳 지고 속님 나니 시절(時節)도 변(變)혀거다
 풀 소계 푸른 버레 나뉘 되야 ㄴ다ㄴ다
 뒤라셔 조화(造化)를 자바 천변만화(千變萬化)혀논고

<제26수>

느저 날서이고 태고(太古)ㅸ적을 못 보완자
 결승(結繩)을 파(罷)흔 후(後)에 세고(世故)도 하도할샤
 출하로 주향(酒鄉)에 드러 이 세계(世界)를 니즈리라

<제27수>

준중(樽中)에 술이 잇고 좌상(座上)에 손이 ㄴ득
 대아공문거(大兒孔文學)를 고쳐 어더 불써이고
 어즈버 세간여자(世間餘子)를 닐러 므슴혀리

<제28수>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뎃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제29수>

보허자(步虛子) 못흔 후(後)에 여민락(與民樂)을 니어 하니
 우조계면조(羽調界面調)에 객흥(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상성(商聲)을 마라 히저물가 흐노라

<제30수>

<제26수>는 계절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꽃이 지고 속잎이 나니’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고, <중장>에서는 시간이 흘러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님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를 자연의 조화로 여기고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제27수>에서 화자는 인간 세상사의 복잡함을 잊고자 술집에 들러 속세의 일을 잊고자 한다.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마음이 제정신일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제28수>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가득한 술집에서 홀로 외로이 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공자의 후손’을 찾아볼까 하다가 치우고 만다. 공자의 후손은 즉 인재를 말하는데, 화자가 말하는 인재는 자신의 속뜻을 알아줄 사람이라는 것이다. 속세에 사는 사람 중 자신의 높은 뜻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며 관둔다.

<제29수>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화자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노래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에게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시름이 많으나, 노래가 자신의 시름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자신도 노래를 불러 보겠다는 의미이다. 사랑의 감정을 말로 설명하면 구질구질하지만, 발라드로 표현하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건드는 것이 없다. 이렇게 화자는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 감정을 노래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수>, <14수>에서는 작은 것에 만족하면 된다면 인자한 선비의 기풍을 보여줬다면, <29수>에서는 술이 들어가자 진실한 속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울 것이다.

<제30수>에서는 화자가 취기를 빌려 노래를 몇 곡 뽑고 있다. ‘보허자’, ‘여민락’, ‘우조계면조’를 부르면서 흥이 더함을 느낀다. 화자가 부르는 노래들은 궁중 음악이다. 그중 계면조는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설움을 노래로 풀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작가인 신희이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경기도 김포로 쫓겨나 있던 시기에 반년여에 걸쳐 쓴 전체 30수의 연작 시조이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삶의 정취와 연군지정,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이 30수의 시조에 두루 담겨 있다. '겨울 → 봄 →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 흐름을 작품 전체의 기본 틀로 삼아 30수의 시조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를 지녔다고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연군지정과 세태에 대한 좌절감을 계절적 흐름에 담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신희이 「방옹시여」를 창작한 동기는 김포로 쫓겨나면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세상에 대한 염증과 시름, 세상에 대한 대결의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우리말 노래로써 쫓겨난 자신의 처지를 차분히 돌아보며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좀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방옹시여」의 내용과 주제의식은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삶, 술에 취하거나 도가적(道家的) 세계로 넘어가 복잡하고 번잡한 세상을 잊겠다는 현실 도피와 초월의 지향, '부재하는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기, 출처에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을 향한 비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도 : 극상

수능특강 53p 우국가

학문(學文)을 후리티오 반무(反武)을 호은 뜻은
삼척검(三尺劍) 들너메오 진심보국(盡心報國) 호러터니
훈 일도 호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호노라

<제1수>

임진년(壬辰年) 청화월(淸和月)의 대가서순(大駕西巡) 호실
날의

곽자의(郭子儀) 이광필(李光弼) 되오려 맹서(盟誓)러니
이 몸이 부재(不才)론들도 알 니 업서 호노라

<제2수>

나라히 못니줄 거손 네 밧기 뇌여 업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 원수(怨讐) 못내 갑풀가 칼만 곁고 잇노라

<제3수>

성(城) 잇사되 막으랴 네와도 홀 일 업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洲)의 엇디 엇디 덕킬게오
아모리 신신정졸(盡臣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호리

<제4수>

도적(盜賊) 오다 뉘 막으리 아니 와서 알니로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州)의 누고누고 힘서 홀고
아모리 애고애고호들 이 인심(人心)을 어리호리

<제5수>

어와 설운디오 싱각거든 설운디오
국가(國家) 간위(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간위(艱危) 알아 구중천(九重天)의 술오쇼셔

<제6수>

통곡관산월(慟哭關山月)과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을
선왕(先王)이 쓰실 적의 누고누고 보온게오
들 불고 바람 불 적이면 눈의 삼삼호여라

<제7수>

뫼의 와 니르샤디 성태조(聖太祖) 신령(神靈)계셔
강상궁(降祥宮) 디으시고 수덕(修德)을 호랴테다
나라히 천년(千年)을 느르심은 이 일이라 호더이다

<제8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이도(移都) 뜻 마르쇼셔
일백(一百) 적 권(勸)호여도 마르쇼셔 마르쇼셔
향천년(享千年) 부발공기(不拔鞏基)를 더져 어히 호시릿가

<제9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하 의심(疑心) 마르쇼셔
 득민심외(得民心外)에는 호을 일 업느이다
 향천년(享千年) 몽중전교(夢中傳教)는 귀에 쟁쟁(鏗鏘)호여이다
 <제10수>

뵤나하 공부대답(貢賦對答) 쓸씨허 요역대답(徭役對答)
 옷버슨 적자(赤子)들이 비끓과 설워호니
 원(願)컨덴 이 뜻 아르샤 선혜(宣惠) 고로 호쇼셔
 <제11수>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란 여사(餘事)로 혀여두고
 낭묘상(廊廟上) 대신(大臣)네 진심국사(盡心國事) 호시거나
 이렁성 저렁성호다가 내종 어히 호실고
 <제12수>

힘빠 호는 빠흙 나라 위(爲)호 빠흙인가
 옷밥의 못터이셔 흘 일 업서 빠오눗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호니 다시 어히호리
 <제13수>

이논 저 외다 호고 저논 이 외다 호니
 매일(每日)의 호는 일이 이 빠흙 썬이로다
 이 중의 고립무조(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호노라
 <제14수>

마롤디여 마롤디여 이 빠흙 마롤디여
 상가(尙可) 경동서(更東西)를 생각호야 마롤디여
 진실(眞實)로 말기웃 말면 목목제제(穆穆濟濟) 호리라
 <제15수>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흙 마리쇼셔
 지공무사(至公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진실(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 호리이다
 <제16수>

이 이권들 즐거오며 저 디다 설울쇼냐
 이구나 디나 나중의 전혜 부관(不關)호다만은
 아마도 씨뎡디 못호니 그를 설워호노라
 <제17수>

이 외나 저 외나 중의 그만 저만 더져두고
 호을 일 호오면 그 아니 죠홀손가
 호을 일 호디 아니니 그 설워노라
 <제18수>

이라 다 울호며 제라 다 글을랴
 두 편이 곱트여 이 빠흙 아니마니
 성군(聖君)이 준칙(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호노라

<제19수>

어와 가소(可笑)로다 인간사(人間事) 가소(可笑)로다
 모 업시 궁그리 시비(是非)을 아니호다
 아모나 공도(公道)을 직키여 모나 본돌 엇더호리
 <제20수>

이제야 생각과라 모르고 호는도다
 국가(國家)의 해(害)로운 줄 혈마 알면 그러호라
 만드시 모르고 호면 일너 불가 호노라
 <제21수>

알고 그린는가 모르고 그린는가
 아니 알오도 모로노라 그린는가
 진실(眞實)로 알고 그리면 닐너 무슴호리요
 <제22수>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슴 무르쇼셔
 자상(仔詳)히 무르시면 역력(歷歷)히 술올이다
 하늘이 높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
 <제23수>

아성조(我聖祖) 적덕(積德)으로 여경천세(餘慶千世) 호읍시니
 선왕(先王)도 효칙(效則)호샤 순천명(順天命) 호시니다
 성주(聖主)는 이 뜻 알르샤 천만의심(千萬疑心) 말르쇼셔
 <제24수>

빠흙애 시비만 호고 공도시비(公道是非) 아닌는다
 어이호 시사(時事) 이긱티 되엇논고
 수화(水火)도곤 집고 더운 환이 날노 기러 가노마라
 <제25수>

나라히 곱드면 답이조차 구드리라
 답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호니
 호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니 답이 곱들이요
 <제26수>

어와 거주 일이 금은옥백(金銀玉帛) 거주 일이
 장안(長安) 백만가(百萬家)의 누고 누고 딛너논고
 어즈야 임진년(壬辰年) 뜻글이 되니 거죽 일만 여기노라
 <제27수>

공명(功名)을 원(願)찬커든 부귀(富貴)인들 비알쇼냐
 일간모옥(一間茅屋)의 고초(苦楚)히 홈자 안자
 밤낫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호노라
 <제28수>

-이덕일, 「우국가」

*반무: 문관이 무관이 됨.

*간위: 어려움과 위기.

*구중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제6수>에서 화자는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걱정하며, 이런 위기에 무관심한 당대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발발 이전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둘이 전쟁 대비의 견해를 달리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백성의 혼란과 전쟁 대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고려해 선조는 판단을 미루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진 것이다. 조선의 군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7수>에서 화자는 임금의 쓴 시 '통곡관산월'과 '상심압수풍'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으며 그 당시 임금의 심정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며 현재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제8수>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태조 신령이 나라가 천년을 누리려면 강상궁을 짓고 덕을 닦으라 하였다며, 나라를 위한 충심을 내 보이고 있다. 신하로서의 화자가 꿈속에서까지 임금을 만나 나라를 위한 대책을 생각할 정도로 충심이 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9수>에서 화자는 도읍 천도를 말리고 있다. <초장>에서 AABA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중장>에서도 '마리쇼셔'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음이 핵심이다.

<제10수>에서도 AABA 구조가 나타난다. 화자는 민심을 얻는 일에만 신경 쓸 것을 강조하는데 <제8수>에서 선왕의 가르침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피나하 공부대답(貢賦對答) 쓸찌허 요역대답(徭役對答)
 옷머슴 적자(赤子)들이 비끓과 설위호니
 원(願)컨댄 이 뜻 아르샤 선혜(宣惠) 고로 호쇼셔
 <제11수>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란 여사(餘事)로 혀여두고
 낭묘상(廊廟上) 대신(大臣)네 진심국사(盡心國事) 호시거나
 이렁성 저렁성호다가 내종 어히 호실고
 <제12수>

힘써 호는 빠흠 나라 위(爲)호 빠흠인가
 옷밥의 못터이셔 홀 일 업서 빠오놋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호니 다시 어히호리
 <제13수>

이는 저 외다 호고 저는 이 외다 호니
 매일(每日)의 호는 일이 이 빠흠 썬이로다
 이 중의 고립무조(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호노라
 <제14수>

마롤디여 마롤디여 이 빠흠 마롤디여
 상가(尙可) 경동서(更東西)를 싱각호야 마롤디여
 진실(眞實)로 말기웃 말면 목목제제(穆穆濟濟) 호리라
 <제15수>

<제11수>에서 화자는 가혹한 조세 수탈을 비판한다. <초장>의 '공부대답'과 '요역대답'은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공물과 부역으로

이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호소하고 있다. '적자'는 핏덩이인 갓난아기를 뜻하는데 백성의 어버이로서의 임금의 입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제12수>~<제15수>에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제 잇속만 생각하여 봉당 간 싸움을 일삼는 대신들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임금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임금의 심정을 '고립무조', 즉 홀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흠 마리쇼셔
 지공무사(至公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진실(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 호리이다
 <제16수>

이 이권들 즐거오며 저 디다 설울쇼냐
 이기나 디나 나중의 전혜 부관(不關)호다만은
 아모도 씨뎡디 못호니 그를 설위호노라
 <제17수>

이 외나 저 외나 중의 그만 저만 더져두고
 호을 일 호오면 그 아니 죠홀손가
 호을 일 호디 아니니 그 설위호노라
 <제18수>

이라 다 올호며 제라 다 글올라
 두 편이 꺾터여 이 빠흠 아니마니
 성군(聖君)이 준칙(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호노라
 <제19수>

어와 가소(可笑)로다 인간사(人間事) 가소(可笑)로다
 모 업시 궁그러 시비(是非)을 아니호다
 아모나 공도(公道)을 직키여 모나 본들 엇더호리
 <제20수>

<제16수>~<제20수>도 봉당 간의 싸움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데 화자는 봉당 간 싸움의 해결책으로 임금이 직접 공정한 대안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0수>에서 화자는 임진왜란을 겪고도 당파 싸움을 그치지 않는 대신들을 보며 인간사가 가소롭다며 환멸을 느끼고 있다. <중장>에 '모가 난'다는 표현은 당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바른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야 싱각과라 모르고 호는도다
 국가(國家)의 해(害)로운 줄 혈마 알면 그러호랴
 반드시 모르고 호면 일너 불가 호노라
 <제21수>

알고 그린는가 모르고 그린는가
 아니 알오도 모로노라 그린는가
 진실(眞實)로 알고 그리면 닐너 무슴호리요

<제22수>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습 무르쇼셔
 자상(仔詳)히 무르시면 역력(歷歷)히 술올이다
 하늘이 높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

<제23수>

아성조(我聖祖) 적덕(積德)으로 여경천세(餘慶千世) 흐옵시니
 선왕(先王)도 효칙(效則)흐샤 순천명(順天命) 흐시니다
 성주(聖主)는 이 뜻 알르샤 천만의심(千萬疑心) 말르쇼셔

<제24수>

빠홈에 시비만 흐고 공도시비(公道是非) 아닌는다
 어이흐 시사(時事) 이곳티 되엿느고
 수화(水火)도곤 깊고 더운 환이 날노 기러 가노마라

<제25수>

<제21수>~<제25수>에서도 봉당 간 싸움 비판이 주를 이룬다. 주목할 부분은 <제23수>이다. <제23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어주소서, 제가 사되 리다.’는 고립무조하여 나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임금의 처지를 헤아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작가가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봉당 정치로 얼룩진 조정을 자신의 목소리가 뚝기에는 너무도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히 굿드면 답이조차 구드리라
 답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흐니
 흐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너 답이 굿들이요

<제26수>

어와 거주 일이 금은옥백(金銀玉帛) 거주 일이
 장안(長安) 백만가(百萬家)의 누고 누고 딛너느고
 어즈아 임진년(壬辰年) 뜻글이 되니 거죽 일만 여기노라

<제27수>

공명(功名)을 원(願)찬커든 부귀(富貴)인들 비알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의 고초(苦楚)히 홈자 안자
 밤낮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위흐노라

<제28수>

<제26수>~<제28수>는 우국가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각 당에게 충고하고, 거짓말이 들끓는 세상에 한탄한다. 이 작품의 결사인 <제28수>에서 화자는 공명을 원하지 않으므로 부귀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초가집에서 홀로 힘들게 살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불우한 자신의 상황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나라를 걱정할 때 비로소 서러움을 느낀다며 자신의 충심을 간절히 전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우국가」 28수는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이덕일이 고향 함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작품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무과에 급제한 인물로,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시조인 「우국가」는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조를 지닌다. <제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관료의 무능과 봉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등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나라와 시대를 근심하는 충신의 마음을 담아낸 우국 시조이다. 작가는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과 봉당이라는 정당 싸움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 폐해를 지적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직설적이며 강경한 어조가 특징적이다. 외적에게는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당쟁 싸움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운율 구조나 시구의 반복 지점은 찾기 쉬우나 특히 ‘구중천’ 같은 우국 시조 특유의 어휘는 상징성이 강해 의미 유추가 어려우므로 외워두자.

중요도 : 상

수능특강 56p 거창가

거창지경(居昌之境)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례
 네 읍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징(詳定)할 제
 타읍은 열한두 냥 민간에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육칠 냥 해마다 가증(加增)하네
 타읍도 목상납(木上納)*을 호조혜청(戶曹惠廳) 봉상하고
 본 읍도 목상납을 호조혜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 냥씩 가증하노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절통타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건
 마는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偷食) 뉘 하시고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는 제일 심한 가포라
 삼사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더욱 심하다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하며
 많으면 일이백 냥 적으면 칠팔십 냥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蕩產)하고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록군병(水陸軍兵) 던져두고
 선무포 제번포며 인리포 노령포라
 명색(名色)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하니
 김(金)담사리 박(朴)담사리 큰 얘기며 작은 얘기*
 어서 가고 바빠 가자 향작청(鄉作廳)에 잡혔단다
 앞마을에 짓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籤丁) 가련하다
 생민가포(生民價布)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 무슨 일고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관대 가포 돈이 어인 일고
 관문(關門)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커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설다
 가포탈*할 제 원정(冤情)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習) 슬픈 밤에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東軒) 하늘 함께 운다
 청산(靑山) 백수(白首)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南山)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 주며
 동원(東園)에 익은 술을 뉘 데리고 화답(和答)하고
 어린 자식 아버 불러 어미 간장 녹여 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배고파 설위하며
 가장(家長) 생각 설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난다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差使)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베를 탈취하여 가단 말가
 청천(靑天)의 외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上林園)*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중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別般) 처분 내리소서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禁府都事) 내리나니
 자루 짚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어와 백성들아 연후(然後)의 태평세계(太平世界)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 , 「거창가」

*결복: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
 던 단위인 결, 짐, 못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목상납: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나 물건을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
 던 일.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 버린 모
 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
 *재: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
 *재결: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회감: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가포: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
 에 준하여 바치던 베.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① 직유법
- ② 설의법
- ③ 대구법 [Ex. 25행~26행]
- ④ AABA의 운율 구조 [Ex.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
 다]
- ⑤ 정서의 직접적 제시
- ⑥ 객관적 상관물 [Ex.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 하늘 함께 운다]
- ⑦ 의인법
- ⑧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의 활용 [Ex. 월락삼경 깊은 밤과 천음우
 습 슬픈 밤에]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거창지경(居昌之境)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례
 네 읍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징(詳定)할 제
 타읍은 열한두 냥 민간에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육칠 냥 해마다 가증(加增)하네
 타읍도 목상납(木上納)*을 호조혜청(戶曹惠廳) 봉상하고
 본 읍도 목상납을 호조혜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 낭씩 가증하노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절통타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건
 마는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偷食) 뉘 하노고

<거창가>는 시골의 한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 비판 가시이다. 거창은 실제 지명으로 경상남도의 한 도시이다. 이 작품은 거창에서 일어난 탐관오리들의 행패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 굳이 진행된 본사와 결말 부분인데, 작품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창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알 수 있다.

<1~13행>에서의 키워드는 ‘거창의 백성들이 겪는 세금 가중의 피해’와 ‘탐관오리들의 비리’이다. 먼저, 화자는 거창은 주변 네 읍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세금을 낸다며 지적한다. 거창은 자연재해로 인해 모래가 쌓여 쓰지 못하는 논밭에까지 토지세가 부과되었다. 물론 한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의 토지제도를 참조한다면 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감면하였을 것이다. 중간에 탐관오리가 농간을 부린 것이다. 화자는 이를 지적하며 탐관오리의 횡포와 비리를 폭로한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지명의 언급과 상황의 자세한 언급으로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는 제일 심한 가포라
 삼사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더욱 심하다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하며
 많으면 일이백 냥 적으면 칠팔십 냥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蕩產)하고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록군병(水陸軍兵) 던져두고
 선무포 제번포며 인리포 노령포라
 명색(名色)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하니
 김(金)답사리 박(朴)답사리 큰 얘기며 작은 얘기*
 어서 가고 바빠 가자 향작청(鄉作廳)에 잡혔단다
 앞마을에 짓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籤丁) 가련하다
 생민가포(生民價布)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 무슨 일고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관대 가포 돈이 어인 일고
 관문(關門)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커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설다
 가포탈*할 제 원정(冤情)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霽) 슬픈 밤에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東軒) 하늘 함께 운다

<14~35행>은 가포를 중심으로 당대의 억지스러운 세금부과를 표현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20~21행>에는 악생포 외에도 다양한 가포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행>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과 어린아이까지 가포를 물렸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다수 등장한다.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물린 황구첨정과 죽은 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를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찌 됐건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을 폭로하고 있음에 주목하면 된다.

청산(靑山) 백수(白首)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南山)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 주며
 동원(東園)에 익은 술을 뉘 데리고 화답(和答)하고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 간장 녹여 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배고파 설워하며
 가장(家長) 생각 설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난다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差使)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베를 탈취하여 가단 말가

<36~45행>에서 제시된 중요한 인물은 과부이다. 과부는 가장을 잃었기 때문에 밭을 갈기도 어렵고 같이 괴로움을 나눌 사람도 없다. 아비를 잃은 자식의 울음소리만이 여인의 마음을 서럽게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과부는 충분히 가혹한 현실을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포이다. 백골징포가 죽은 남편에게도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화자는 ‘흉악하다’며 자신의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낸다.

청천(靑天)의 외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上林園)*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중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別般) 처분 내리소서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禁府都事) 내리나니
 자루 씬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어와 백성들이 연후(然後)의 태평세계(太平世界)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46~56행>은 결사에 해당한다. 결사는 거창의 가혹한 현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먼저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임금이 있는 궁궐에 가서 거창의 상황을 고해달라 한다. 즉 외기러기는 임금과 화자를 연결해줄 매개물이자 자연물이다. 그리고 탐관오리를 벌할 수 있는 존재인 금부도사를 내려달라 한다.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거창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는 작품이 마무리된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이본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1840년 전 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저지른 탐학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현실 비판 가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거창부폐장 초」 등의 자료를 통해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입증되면서 19세기 전반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기층 민중들이 중세적 지배질서의 해체가 이루어지던 조선조 말기에 지방관의 학정을 비판하며 저항 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가사 작품이다. 내용상 규탄의 표적은 개인으로서의 거창 수령 이재가와 탐학을 일삼는 아전들이었는데, 이재가가 이임하고 나서도 삼정(三政)의 문란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형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이나 아전들도 바뀌긴 했으나 이재가를 규탄하는 노래가 여전히 힘을 발휘한 것은 이재가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치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체제 혁명이 아닌 정상적 통치 질서의 확립에 대한 기층 민중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임금에게 호소하고 기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민중의 입장에는 우선 탐관오리를 제거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다.

중요도 : 중

수능특강 56p 향산별곡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신고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삭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銓)*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하여 보소
- 작자 미상, 「향산별곡」

1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① 설득적 어조 [Ex.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 ② 나열법
- ③ 대구법 [Ex.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2 임권의T의 짚어주기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신고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삭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화자는 백성을 괴롭히는 ‘원님네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배척 말라 함으로써 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설득의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부임 전의 평판은 총명하고 어진 사람이었는데 향산에 오고 나서는 소문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설의법으로 지적한다. 이는 원님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드러낸다.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에서는 매관매직을 지적하며 향촌 수령들의 부조리한 실태를 열거하고 있다.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銓)*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하여 보소

‘있던 인자 어디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는 대구의 구조로 부임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른 것을 비판한다.

화자는 원님이 학민하는 이유를 원님의 욕심으로 들며 아부 떨려 는 마음을 버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마음을 바로잡기를 소망 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거창가」와 더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시골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백성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며 조정 대신들의 당쟁과 과거제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서술하여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부패한 관리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교훈성도 드러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세기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가사라 할 수 있다. 주제의식에서 <거창가>와 연결되는 지점이 많으므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엮여 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창가>와 <향산별곡>의 현실인식과 대응 양상은 꽤 다른 형태이다. <거창가>에서는 거창의 참상이 수령 이재가가 부임하면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향산별곡>의 경우, 수령이 부임한 후 변질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민하는 관장네들’, ‘도임들’이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만의 사례가 아닌 일반적 현상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 원인 또한 ‘명기생, 간리수, 환소주, 진고량’임을 언급하고 결국 그들이 이욕에 빠져 본성을 저버렸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향촌 내 상존하는 어떤 폐단들이 개인의 도덕성을 침해한다는 일련의 환경적 요인과 그 영향 문제에 주목한다. 이처럼 수령은 경우에 따라 탐학의 주체로, 혹은 향촌 내 통제력 상실과 맞물린 불법 행위와의 포섭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중요도 : 극상

수능특강 61p 규원가(閨怨歌)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널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
 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
 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
 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든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
 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
니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 ① 직유법
- ② 설의법
- ③ 대구법
- ④ 동일한 문장구조의 반복
- ⑤ 감정이입
- ⑥ 고사 인용
- ⑦ 과거와 현재의 대비
- ⑧ 계절적 이미지
- ⑨ 설화의 차용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
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

나

15행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규원가>의 '규'는 '규방의 여인'을, '원'은 '원망의 감정'을 의미한다. 시 전반적으로 화자인 여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이 전개되는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허난설헌이 중국 본토의 문인들에게 한시로 우위를 점할 정도로 뛰어난 문화가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허난설헌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천재였던 것에 비하면 남편은 너무도 초라했다. 남편이 정말 몹쓸 인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보통 능력으로는 허난설헌과 비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선비들이 허난설헌을 찾아 문장을 나누었는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허난설헌으로부터 도망쳐 인생을 유흥과 향락으로 보내는 길을 택한다.

<1행~15행>은 화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비가 잘 드러난다. 화자의 모습은 '천연여질/설빈화안'에서 '면목가증'으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서 늙었기도 하겠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표정에 묻어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시어는 '공후배필, 군자호구'에서 '장안유협 경박자'로 추락하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본인이 바라던 남편감과 결혼하지 못하고 세월만 무상하게 흘렀다는 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시 전체적으로 화자의 한탄과 슬픔이 서려 있다.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야 한다.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든
얼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16~28행>에서 임은 호화로운 복장을 입고 바깥으로 나돌고 있는데, 화자는 이러한 임이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동반되는데, 화자는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 즉 애증(愛憎)의 감정이 동반된다.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은 '겨울의 자취'와 '여름의 굶은비'가 활용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또한 '실술'이 우는 모습에서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꿩쳐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
 니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29~37행>에서는 '녹기금, 벽련화 한 곡조' 등 과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 본인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33행~34행>에 드러난 여러 고사들은 모두 '벽련화의 노래'와 관련하여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37행>을 보면 화자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38~50행>에서 화자는 꿈을 이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그러나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때문에 화자는 잠에서 깨는데, 이러한 묘사는 임과의 만남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다음으로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견우직녀와 비교하면서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자신은 그마저도 만나지 못한다며 한탄한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므로 참고해두자. 화자의 이러한 임을 만나지 못하는 슬픈 감정은 다시 새에 이입되며, 화자의 서러움을 배로 강조한다.

화자의 문제적 상황은 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 화자는 이런 임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박명한 홍안'이라 표현하며, 화자 본인의 슬픔, 괴로움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의 하나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서글퍼하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런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선조 봉건제도 아래서 빈방[空閨]을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버림받은 여인의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젊음은 가 버리고 이제 늙어 지난날을 돌이켜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안의 건달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얼음 밟듯이 조심스런 세월을 보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마저 변해 버리자 남편은 떠나간다. 다음은 떠난 임에 대한 질투와 그리움으로 이미 떠난 임인데도 그가 어느 여인에게 머물고 있는지 안타까워하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신세인데도 더욱 그리워지는 역설에 시달린다. 시름을 자아내는 데는 네 계절이 모두 다름없다. 특히 빈방을 지키는 여인의 한이 하루 중 밤이 부각되어 드러난다. 찬 겨울밤, 길고 긴 여름밤, 경치가 시름을 안겨주는 봄밤, 달빛 비치고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이 모두 그녀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된다. 다음에는 시름을 이기려는 주인공의 처절한 노력이 묘사된다. 등불을 돋우고 거문고를 타다가 잠을 청하여 꿈속에서나마 현실의 욕구불만을 해소해보려 하기도 하고, 풀숲에 우는 풀벌레에게 자신의 한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중요도 : 중

수능특강 64p 한양가(漢陽歌)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廛)* 장할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중략)
 도자전(刀子廛)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용잠(龍簪)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
 잠(菖蒲簪)과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노리개 불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끈 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광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지도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 계건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해학반도 십장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횡축(橫軸)을 불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십 노옹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끈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 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 한산거사, 「한양가(漢陽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한양의 풍물에 대한 소개와 감탄

- ① 열거법이 나타나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Ex. 생선전 → 도자전 → 그림 가게]
- ③ 고사의 인용 [Ex. 23행~28행]
- ④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Ex. 백각전 장할시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산수도 기이하다]

중요도 : 상

수능특강 222p 속미인곡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텃양(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흐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는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똥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흐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긔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흐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튼 얼굴이 편흐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흐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는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피 네와 ㄱ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는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ㅁ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늙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ㅁ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긔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늘 위흐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흐야 풋증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흐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ㄱ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ㅁ음의 머근 말슴 슬긔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 흐야 목이조차 매여흐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씨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입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연군지정

- ① 갑녀와 을녀의 대화에 따른 시상 전개
- ② 대화체
- ③ 직설적이고 소박한 어조
- ④ 과장법
- ⑤ 대구법
- ⑥ 설의법
- ⑦ 상징적인 시어의 사용 [Ex. 구름, 안개, 바람]
- ⑧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 [꽃잠, 오던된 계성(鷄聲)]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텨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노고

<속미인곡>은 정철의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작품의 구조를 두 여인의 대화로 설정한 것과 여성 화자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은 연계 교재에서 <보기> 지문에 등장한 개념인데, 고전 시가의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이 모티프를 사용한 다른 작품들과 한데 묶어 문학 이론과 함께 출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꼭 익숙한 개념으로 만들자.

<1행~3행>은 갑녀가 을녀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을녀는 분명 천상 백옥경에 있어야 하는데 지상 세계에 내려와 있음에 의문을 느끼고 을녀에게 말을 건다.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흥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려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듯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긔티 빠져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을녀가 갑녀의 부름에 응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발화자의 전환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심지어 갑녀는 거의 말이 없다.

을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입이 갑자기 자신을 내친 것을 서러워하고 있다.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에서 자신에 대한 입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녀는 입과의 이별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많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을녀의 운명론적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대구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가사처럼 긴 글은 리듬감이 없으면 시로 읽을 수가 없으므로 가사에서 대구법은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표현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7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노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꺾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노고

갑녀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사라진다. 을녀는 입에 대한 걱정을 일년 내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 '춘한고열과 추일동턴'이다. 이러한 화자의 반응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입을 향한 화자의 근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죽조반 조석 피'는 '기나긴 밤의 잠'과 연결되어 하루라는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입의 일상적인 삶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므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눅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7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호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노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호더이고

을녀는 입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으로 직접 올라간다. 화자는 속세와 격리된 공간에 있어서 속세의 소식을 전하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 있는 곳을 보려 하니 '구름, 안개'가 입을 가리고 있어 볼 수가 없다. 이들은 화자의 서러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며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 그리고 작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작가의 정적(政敵)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구름, 안개'가 햇빛과 달빛을 가리는 존재임을 고려할 때 임금의 은덕을 가리는 간신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원래 나 빼고 다 간신이고 악당인 법이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직접 배를 타고 나가보려 하지만 사공이 없다. 이때 빈 배는 방해물보다는 화자 자신의 공허한 심정을 형상화한 사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고 싶은 마음은 배로 구현이 되었는데 배를 움직일 주인이 없다. 즉, 임이 부재한 화자의 상황과 일치한다.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증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7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옴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어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씨뚫던고

이전의 산과 강을 간 이후로 어느덧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 화자는 힘이 다 빠져 풋잡을 자는데 이때 꿈에서 임이 나온다. 꿈은 이전의 방해물들과 달리 임과 화자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 화자는 자신 속에 있는 말들을 전부 전하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때 닭이 잠을 깨운다. 그토록 원하던 임과의 재회를 꿈속에서나마 이뤘는데 그 꿈조차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읍녀의 감정선을 잘 따라가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꿈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에서 비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학에서 시간은 비극성을 조절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일상 속에서도 당장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설레서 잠이 안 오고, 지치고 힘들 때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한 것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고려가요 <만전춘별사>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엮어 공부하는 것이 좋다.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끝내 읍녀는 서러워하며 차라리 죽어 '지는 달'이 되어 임에게 빛으로 다가가고 싶다고 전한다. 마지막 행에 갑녀가 등장한다. 갑녀는 꺾은 비가 되어 임의 옷깃을 적시라고 조언한다. 이는 읍녀 속에 담겨 있는 임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과 그 간절함을 포착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읍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작가 자신이 스스로 해주는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며 모든 존재가 한번 바뀐 것은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므로, 순간성에 따라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서의 시간은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인위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어떤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순환적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 더욱 빠르게 혹은 더욱 더디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을 초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군(戀君)의 뜻을,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목소리로 노래하여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화자의 독백인 「사미인곡」과는 달리,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진행된다는 점, 한자 속어와 전고(典故)를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낸 점, 과장된 정서 표현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진실하게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한 점에서 참신성을 엿볼 수 있다. 김만중도 그의 저서 『서포만필』에서 전후(前後)미인곡 중 우리말 구사의 뛰어난과 내용의 간절함을 들어 「속미인곡」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중요도 : 극상

수능특강 225p 율리유곡

도연명(陶淵明) 주근 후(後)에 또 연명(淵明)이 나뉠말이
밤문을 네일흠이 마초와 7틀시고
도라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귀오내오 다르랴 <제1곡>

공명(功名)도 니것노라 부귀(富貴)도 니것노라
세상(世上)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니것노라
내몸을 내 마자 니즈니 늬이 아니 니즈랴 <제2곡>

뒷집에 술밭을 꾸니거흔 보리 말 못츠다
즈는 것 마구 씨허 쥐 비저 괴아내니
여러날 주렷든 입이니 드나 브나 어이리 <제3곡>

강산한아(江山閑雅)흔 풍경(風景) 다 주어 맛다이셔
내 혼자 남자여나 뒤라셔 드틀소니
늬이야 숨쭈지 너긴들 눈화 볼 줄 이시랴 <제4곡>

딜가마 조히 싯고 바회 아래 심물 기려
팍죽 달게 뿌고 저리지 이쁘어 내니*
세상(世上)에 이 두 마시아 늬이 알가 호노라 <제5곡>

어와 저 백구(白鷗)야 므슴 슈고 호느슨다
굴숯호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호느괴야
날긋치 군막음업시 잠만 들면 엇더리 <제6곡>

모침(茅簷) 기나긴 희에 희을 일이 아조 업어
포단(浦團)에 낫즘 드러 석양(夕陽)에 지자 씨니
문(門)밖귀 뒤 으흠흠며 낙시가자 호느니 <제7곡>

삼공(三公)이 귀(貴)타 혼들 이 강산(江山)과 밧골소냐
편주(扁舟)에 들을 싯고 낙대를 훗더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우(萬戶侯)인들 부르랴 <제8곡>

추강(秋江) 불근 들에 일엽주(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썰쳐드니 자는 백구(白鷗) 다 놀란다
어디셔 일성어적(一聲漁笛)은 조차 흥(興)을 돕느니 <제9곡>

헛글고 싯근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 추풍(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프리 밋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식힌호랴 <제10곡>

대 막대 너를 보니 유신(有信)호고 반갑괴야
나니 아헛적의 너를 타고 든니더이
이제란 창(窓)뒤혜 섯다가 날뒤세고 든너라 <제11곡>

세상(世上) 사롬들이 다 브러 어리더라

죽을줄 알면서 놀줄란 모로더라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장일취(長日醉)로 노노라 <제12곡>

사롬이 주근 후(後)에 다시사니 보왔는다
왔노라 호니 업고 도라와 놀 보니 업다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사라신제 노노라 <제13곡>

황하수(黃河水) 뭍단 말가 성인(聖人)이 나서도다
초야(草野) 군현(群賢)이 다 니러나뉠 말가
어즈버 강산(江山) 풍월(風月)을 놀을주고 갈소니 <제14곡>

세(細)버들 가지(柯枝) 것거 낙근 고기 뛰여들고
주가(酒家)를 츠즈려 단교(斷橋)로 건너가니
원골에 행화(杏花)저 빠히니 갈 길 몰라 호노라 <제15곡>

동풍(東風)이 건 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노기니
사면청산(四面靑山)이 네 얼굴 나노매라
귀밋퇴 히무근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제16곡>

최행수(崔行首) 뿍달힘호세 조동갑(趙同甲) 곳달힘호세
들뻘 게뻘 오려 점심(點心) 날 시기소
매일(每日)에 이령성굴면 므슴 시름 이시랴 <제17곡>
- 김광육, 「율리유곡」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 ① 설의법 [Ex. 귀오 내오 다르랴, 남이 아니 잇으랴, 잠만 들면 어떠리, 무슨 시름 잇으랴]
- ② 대구법 [Ex. 공명(功名)도 잇었노라 부귀(富貴)도 잇었노라, 최행수 뿍달임하세 조 동갑 뿍달임하세]
- ③ 영탄법 [Ex. 어와, 어즈버]
- ④ 감각적 이미지의 구체적 형상화 [Ex. 일성어적, 팔죽 달게 쭈고]
- ⑤ 고사의 인용 [Ex. 제1곡, 제14곡]
- ⑥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흥취를 표현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도연명(陶淵明) 주근 후(後)에 또 연명(淵明)이 나뉠말이
 밤맛을 네일흠이 마초와 7틀시키고
 도라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귀오내오 다르랴 <제1곡>

<율리유곡>은 작가가 율리에서 머무르며 은거할 당시 쓴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 주는 것에 집중한다. <제1곡>에서 화자는 도연명이 머물렀던 마을의 옛 이름과 같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화자 본인과 도연명을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다. 도연명과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설의법을 통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명(功名)도 니젓노라 부귀(富貴)도 니젓노라
 세상(世上)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몸을 내 마자 니즈니 늬이 아니 니즈랴 <제2곡>

<제2곡>에서 화자는 세속적 욕망을 버린 자신의 무욕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장>에서 자신의 몸조차 잊었다는 표현에서 화자의 속세와 단절하고자 한 모습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초연함과 더불어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뒷집에 술밭을 꾸니거흔 보리 말 못츄다
 즈는 것 마구 씨허 쥐 비저 괴아내니
 여러날 주렷든 입이니 드나 뿌나 어이리 <제3곡>

<제3곡>에서 화자는 이웃에게 보리를 꾸어 술을 담는다. <중장>에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언급하며 달든 쓰든 상관없다고 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읽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맛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안분지족의 맥락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강산한아(江山閑雅)흔 풍경(風景) 다 주어 맛다이셔
 내 혼자 넘자여나 뒤라셔 드틀소니
 늬이야 숨쭈지 너긴들 눈화 불 줄 이시랴 <제4곡>

<제4곡>에서 화자는 자신이 자연의 임자임을 보여 주며 조용하게 강산을 즐기고 있다. <초장>에서는 자연이 자신에게 강산한아한 풍경을 맡겼다는 표현에서 자연친화적 태도와 자연의 의인화를 읽을 수 있으며 <중장>과 <중장>에서 설의법으로 자연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덜가마 조히 싣고 바회 아래 심물 기러
 풋죽 들게 뿌고 저리지 이쁘어 내니*
 세상(世上)에 이 두 마시야 늬이 알가 흐노라 <제5곡>

<제5곡>에서 화자는 팔죽과 절인 김치를 먹으며 소박한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소박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안빈낙도의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어와 저 백구(白鷗)야 모습 슈고 흐느는다
 굴숯호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흐느괴야
 날갯치 군맛음업시 좀만 들면 엇더리 <제6곡>

<제6곡>에서 화자는 탐욕스러운 삶에 대한 경계를 보이며 욕심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백구는 일반적으로 청렴의 상징으로 화자와 동일시의 대상으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기를 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대상으로 그려졌다. 자연에 은거하면서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화자를 확인할 수 있다.

모침(茅簷) 기나긴 희에 희을 일이 아조 업어
 포단(浦團)에 낮잠 드러 석양(夕陽)에 지자 찌니
 문(門)밖귀 뉘 으흠흠며 낙시가자 흐느니 <제7곡>

<제7곡>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 낚시를 권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화자가 강호자연에서 한가한 정서를 즐기는 것 즉, 강호한정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삼공(三公)이 귀(貴)타 혼들 이 강산(江山)과 밧골소냐
 편주(扁舟)에 둘을 싣고 낙대를 훑더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우(萬戶侯)인들 부르랴 <제8곡>

<제8곡>에서 화자는 삼공과 자연을 비교하며 삼공과 만호우가 가진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자연을 즐기는 흥취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추강(秋江) 불근 들에 일엽주(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펼쳐드니 자는 백구(白鷗) 다 놀란다
 어디셔 일성어적(一聲漁笛)은 조차 흥(興)을 돕느니 <제9곡>

<제9곡>에서 화자는 가을밤 강 위에서 자연을 즐기며 흥취를 느끼고 있다. <초장>은 가을 강에서 작은 배가 떠 있으며 밝은달이 떠 있는 풍경을, <중장>은 화자가 낚싯대를 꺼내자 자고 있던 갈매기들이 놀라는 모습을, <중장>에는 어디선가 들리는 한 줄기의 피리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중장>에서 화자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가을밤의 흥취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헛글고 싯근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 추풍(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쁘리 밋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식힌흐라 <제10곡>

<제10곡>에서 화자는 어질러진 문서들을 다 내팽개치고 가을바람을 만끽하며 자연으로 말을 달린다. 여기서 문서는 속세를 상징한다. <종장>에서 화자는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는 것과 자신이 자연으로 말을 달리는 것을 비교하며 자신의 상황이 더 시원함을 설의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에서의 삶이 새장과 같은 억압받는 삶이라 느낀 것이다.

대 막대 너를 보니 유신(有信)호고 반갑피야
 나니 아히적의 너를 톨고 든니더이
 이제란 창(窓)뒤혜 섰다가 날뒤세고 든너라 <제11곡>

<제11곡>에서 화자는 대나무 막대기를 보고 '죽마고우'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대나무 막대기를 지팡이로 쓰고 있어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자의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함을 연결지어보면 대나무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화자의 말은 자신이 대나무와 같은 절개와 신의를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상(世上) 사롭들이 다 쓰러 어리더라
 죽을줄 알면서 놀줄란 모로더라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장일취(長日醉)로 노노라 <제12곡>

<제12곡>에서 화자는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충고하고 있다. 인생무상을 강조하며 자연 속에서 노는 것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사롭이 주근 후(後)에 다시사니 보왔는다
 왔노라 하니 업고 도라와 놀 보니 업다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사라신제 노노라 <제13곡>

<제13곡>에서 화자는 현세의 삶과 현세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인생무상과 더불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하수(黃河水) 물단 말가 성인(聖人)이 나셔도다
 초야(草野) 군현(群賢)이 다 니려나닷 말가
 어즈버 강산(江山) 풍월(風月)을 늘을주고 갈소니 <제14곡>

<제14곡>에는 황허강은 항상 흙탕물이지만 천년에 한 번 맑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성인(聖人)이 등장한다는 중국의 고사가 표현되어있다. <종장>에는 초야의 군현, 즉 재야에 있는 선비들이 조정에 나아간 상황이다.

<종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말아 둔' 강산풍월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실제로 김광옥이 다시 관직으로 진출하였으므로 미루어 보아 <종장>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細)버들 가지(柯枝) 것거 낙근 고기 뛰여들고
 주가(酒家)를 츠즈려 단교(斷橋)로 건너가니
 원골에 행화(杏花)저 빠히니 갈 길 몰라 흐노라 <제15곡>

<제15곡>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여 잡은 물고기를 들고 술집을 찾아가다가 살구꽃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다. <종장>의 '갈 길 몰라 흐노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자연을 감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동풍(東風)이 건 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노기니
 사면청산(四面靑山)이 네 얼굴 나노매라
 귀밧티 히무근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제16곡>

<제16곡>에서 화자는 봄바람이 불면 계절은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지만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언급하고 있다. 대나무 막대를 보고 자신의 늙음을 자각한 바 있으므로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종장>의 '귀밧티 히무근서리'는 <탄로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으로 귀밑에 내린 하얀 서리는 구레나룻이 희끗해졌음을 의미한다.

최행수(崔行首) 뽕달힘호세 조동갑(趙同甲) 곳달힘호세
 들뽕 게뽕 오려 점심(點心) 날 시기소
 매일(每日)에 이령성굴면 므슴 시름 이시라 <제17곡>

<제17곡>에서 화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지낸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으니 작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행수, 조동갑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최 어르신, 조 군, 조 씨 정도의 뜻이다. 화자의 친화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 반정으로 재출사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울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곡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 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강호가도 계열의 전원시가이다. “陶淵明(도연명) 죽은후에 또연명이 나뉠말가/밤ㅁ을 넷일흠이 맛초와 꺾틀씨고/돌아와 守拙田園(수졸전원)이야 귀오내오 달으라”(제1수) 하여 도연명의 전원생활의 소박[守拙]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벗을 만나면 “열어날 줄렸쁜입이 니 든아쓴아 먹으리라”(제3수) 하여 벗과 술병을 기울이고, 농사의 여가에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최행수 딱달힘하새 조 동갑 꺾달힘하새”(제14수) 하며 강(講)을 즐기고, 이리하여 “내뎡을 내뎡을 내ㅁ자니즌이 늡이 안이니즐야”(제2수)라고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을 상징하는 세상의 시끄러움을 잊어버린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의 전원시가는 이렇듯 농촌생활의 소박을 동경하였으며, 그리하여 한적(閑寂)의 미를 추구하였다. 관념적인 말이 없고, 소재도 농촌의 생활에서 취하여, 형상이 소박에 맞추어졌다. 특히 보리술·풋죽·쑥달임·꽃달임·닭찜·게찜 등의 소재를 통하여 농촌생활의 담박함을 나타내었다.

중요도 : 상

수능특강 270p 오륜가(五倫歌)

아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제1수>

임금을 섬기오되 정(正)한 길로 인도(引導)하여
국궁진취(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가다가 불합(不合)곳하면 물러간들 어떠리

<제2수>

부부(夫婦)라 하온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여고금슬(如鼓琴瑟)하면 괴 아니 즐거우냐
그렇고 공경(恭敬)곳 아니면 즉동금수(卽同禽獸) 하리라

<제3수>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눈화시니
인간(人間)의 귀(貴)흔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갑 주고 못 어들 거슨 이뿐인가 하노라

<제4수>

벗을 사귀오디 처음의 삼가하야
날도곤 나으 니로 곱히여 사귀여라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덕히여 구이경지(久而敬之)*하여
라

<제5수>

- 김상용, 「오륜가(五倫歌)」

1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오륜의 실천 강조

- ① 명령형 어조
- ② 설의법
- ③ 유교적 덕목을 소재로 한다.
- ④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 인간의 귀흔 거시 이 외에 또 잇는가]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어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孝)여라
<제1수>

<오륜가>는 유교의 덕목인 오륜과 관련된 작품이다. 오륜이란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부자간의 도리, 군신간의 도리, 부부간의 도리, 어른과 아이 사이의 도리, 친구간의 도리를 이른다.

<제1수>는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말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이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로 부모가 아니면 자신이 없음을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종장에 까마귀의 효심인 반포지효를 언급하며 짐승도 효도를 하니 사람의 효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임금을 섬기오되 정(正)한 길로 인도(引導)하여
국궁진취(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가다가 불합(不洽)곳하면 물러간들 어떠리
<제2수>

<제2수>는 군신간의 도리를 말한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면서도 마냥 따르지만 말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 말하고 있다.

<중장>의 국궁진취는 '말로 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중장>의 '안 맞으면 물러간다'는 화자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심은 변함이 없기에 자신의 가치관을 도저히 관철시킬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부부(夫婦)라 하온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여고금슬(如鼓琴瑟)하면 괴 아니 즐거우냐
그렇고 공경(恭敬)곳 아니면 즉동금수(卽同禽獸) 하리라
<제3수>

<제3수>는 부부간의 도리를 다룬다. 부부는 모르는 사람끼리의 결합이지만 서로 행복하다면 부부의 삶이 즐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강조한 점은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공경을 지키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눈화시니
인간(人間)의 귀(貴)흔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잡 주고 못 어들 거손 이뿐인가 흐노라
<제4수>

<제4수>는 형제간의 도리를 다룬다. 형제는 다른 몸이지만 한 부모 밑에서 나왔기에 그 둘의 사이는 귀한 것이며, 그 사이는 값을 치르기 어려울 만큼 소중하다는 말을 역설한다.

벗을 사귀오디 처음의 삼가(三加)하야
날도곤 나으 니로 굴히여 사귀여라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덕회여 구이경지(久而敬之)*하야
라
<제5수>

<제5수>는 친구간의 도리를 다룬다. 화자는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하며, 나보다 어진 사람을 사귀어야 하고, 친구 사이에도 신의와 공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친구 사이에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즉 오륜(五倫)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지은 연시조이다. 직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조선 중기에 김상용이 지은 연시조이다. 모두 5수로 1장은 부모에 효도할 것을, 2장은 임금을 바르게 섬길 것을, 3장은 부부간에 공경할 것을, 4장은 형제간에 한 기운으로 태어난 것을, 5장은 벗과 사귄데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을 주제로 담고 있다. 오륜가 계열 중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서정성보다 교훈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중요도 : 상

수능특강 270p 우부가

너 말슴 광언(狂言)인가 저 화상을 구경허게.
 남촌 활량(閑良) 기똥이는 부모 덕에 편이 높고
 호의 호식 무식허고 미련허고 용통허야,
 눈은 늙고 손은 커서 가랑 업시 쥬져 넘어
 시체(時體)짜라 의관허고 남의 눈만 위허것다.
 장장 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미팔즈로 무상 출입 미일 장취 계 트림과
 이리 모아 노름 놀기 저리 모아 투전(鬪錢)질에
 기성첩 치가(治家)허고 외입장이 친구로다.
 스랑의는 조방(助幫)군이 안방의는 노구(老嫗)할미.
 명조상(名祖上)을 썩세허고 세도 구멍 기웃 기웃,
 염냥(炎涼) 보아 진봉(進奉)허기 직업(財業)을 싸불니고
 허욕(虛慾)으로 장스허기 남의 빗시 티산이라.
 너 무식은 심각 안코 어진 사람 미워허기,
 후(厚)혈 데는 박허야서 한 푼 돈의 짬이 나고,
 박혈 데는 후허여서 슈빅 량이 헛것시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壓之)하니 반복 소인(反覆小人) 허기진다.
 너 몸에 리(利)혈 디로 남의 말들 탄치 안코
 친구 벗슨 조화허며 제 일가는 불목(不睦)허며,
 병 날 노릇 모다 허고 인습 녹용 몸 보(補)키와
 쥬식 잡기 모도 허야 돈 쥬정을 무진허네.
 부모 조상 도망(頓望)허여 계집 즈식 지물 슈탐
 일가친척 구박허며 너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죽아닌다.
 너 형세는 기치반에 경계판(警戒板)을 질머지고
 업는 말도 지어 니고 시비의 선봉(先鋒)이라.
 날 디 업는 용전 여슈(用錢如水) 상하 텅석(上下撐石)허야 가니
 손님은 초객(僮客)이요 윤의(倫義)는 니 물너라.
 입구명이 제일이라 돈 날 노릇 허야 보세.
 전답 파라 변돈 주기, 종을 파라 월슈(月收) 쥬기
 구목(丘木) 버혀 장스허기, 셔칙 파라 빗 쥬기와
 동니 상놈 부역이요, 먼 데 사람 형악이며
 죽아오라 씨물니라 즈장격지(自將擊之) 몽둥이질,
 전당(典當) 죽고 세간 썩기 계집 문서 종 습기와
 살 결박(結縛)에 소 썩기와 불호령에 솟 썩기와
 여긔저긔 간 곳마다 적실 인심(積失人心) 허겟고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허는 소리로다. 이스나 허야 불가.
 가장(家藏)을 다 파라도 상팔십이 니 팔즈라.
 종손 핑계 위전(位田) 파라 투전질이 싱이로다.
 제스 핑계 제기(祭器) 파라 관즈 구설(官災口舌) 이러는다.
 뒤라셔 도라 불가 독부(獨夫)가 되단 말가
 가련타 저 인싱아 일쥬 걸직이라.
 디모 관즈(玳瑁貫子) 어디 가고 물네줄은 무삼 일고.
 통냥갓슨 어디 가고 헌 파립(破笠)에 통모즈라.
 쥬체로 못 먹든 밥 칩녀 보아 밥 먹는다.
 양복기는 어디 가고 쓴바귀를 단 쏘 싸듯,

죽녀고(竹瀝膏) 어디 가고 모쥬 한 잔 어려워라.
 울타리가 썰나무요 동니 소곰 반찬일세.
 각장 장판 소라 반즈 장지문이 어디 가고
 벽 썩러진 단간방의 거적즈리 열두 님에
 호적 조회 문 바르고 신주보(神主祿)가 갓끈이라.
 은안 준마 어디 가며 선후 구종(驅從) 어디 간고.
 석시 집신 집형이에 정강말이 제격이라.
 습승 보선 티셔희가 어디 가고 슬레발이 불상허고,
 비단 쥬머니 십륙스븐 화류 면경(樺榴面鏡) 어디 가고
 보선목 쥬머니에 습노끈 쥬여 츄고,
 돈피 비즈 담뱃 휘양 어디 가며 룡라 쥬의 어디 간고.
 동지 셋달 배창옷세 습복다름 바지거죽
 궁둥이는 울근불근 엽거름질 병신갓치
 담비 업는 빈 연죽을 소일조로 손의 들고
 어슴비속 다니면서 남에 문전 걸식허며
 역질 핑계 제스 핑계 야속허다 너의 인심 원망헬스 팔즈타령.
 저 건너 썩싱원은 제 아버의 덕분으로 돈 천이나 가졌드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디접 허얏든가
 쥬져 넘게 아는 체로 음양 술슈 탐호허야
 당발복 구산허기 피란곳 츄져 가며
 울 적 갈적 흥노상에 처즈식을 훗허 녹코
 유무 상조 아니허면 조석 난계 혈 슈 업다.
 사인취물 허자 허니 두 번지난 아니 속고
 공납 범용 허자 허니 일가집에 부즈업고
 쓴 지물 경영허고 경향 업시 쓰다니며
 지상가의 청질허다 봉변허고 물너셔고
 남의 골의 걸티 갖다 혼검의 쏙겨 와서
 혼인 중미 혼즈 들다 무렵 보고 썩 마즈며
 가디 문서 구문 먹기 편잔 먹고 잣바지기
 불리 형세 씨그렁이 위조 문서 비리 호송
 부즈나 후려 불가 감언 니설 썩야 보세.
 엇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드리로변에 식쥬가며 노름판에 푼돈 썩기
 남북촌에 썩장어로 인물 초인 허야 불가.
 산진미 슈진미에 산양질노 놀러갈 제
 디중손 양반 즈랑 산소나 파라 불가
 혼인 핑계 어린 쌀은 빅양 쓰리 되얏구나
 안악은 친정 사리 즈식드른 고싱사리
 일가에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드리 불가.
 산너머 썩싱원은 그야말이 허우로다
 거드러셔 한 말 즈랑 디장부의 걸기로다
 동니존장 물나 보고 이소 능장 욱허기와
 의관 열파 사람 치고 마자짜기 썩쓰기와
 남의 과부 겁탈허기 투장 간 곳 청병허기
 친척집에 소 슬기와 쥬먹다짐 일슈로다
 부즈집의 긴허 체로 친헌 사람 이간질과
 월슈돈 일슈돈 장별리 장체기며
 제 부모의 몫쓸 핑스

투전군은 조화하며 손목잡고 술권하며
 제 쳐즈는 몰나 보고 노리기로 정표 주며
 즈식 노릇 못허면서 제 즈식은 귀이 알며
 머나리는 들복그며 봉양 잘못 허령헌다
 기동 베고 벽 썩러라 턴하 난봉 즈칭허니
 붓그림을 모르고서
 주리틀려 경친 것슬 옷슬 벗고 즈랑허며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스랑이라
 늘근 부모 병든 쳐즈 손톱 발톱 제쳐가며
 즈 못 즈고 김습 현 것 술 니기로 장괴두고
 칩망 업시 바린 몸이 무상 심이 못 허여서
 누의 즈식 족하 즈식 식주가로 환미허며
 부모가 걱정허면 와락 더라 부르디며
 안악이 스설허면 밥상 치고 계집치기
 도망산의 피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포청 귀신 되엇는지 듯도 보도 못헐네라.

- 작자 미상, 「우부가」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타락한 양반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경계

- ① 회화화
- ② 풍자
- ③ 대구법
- ④ 대화체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내 말씀 광언이나 저 화상을 구경허게
 남촌 한량(閑良)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 무식허고 미련허고 용통허야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제넘어
 시체(時體) 따라 의관허고 남의 눈만 위허것다

<우부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어리석은 남자, 무능한 양반층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1행에서 '저 화상을 구경허게'에서 화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우부가>는 <속미인곡>과 달리 말을 건네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저 아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2~5행에는 비판의 대상인 '개똥이'를 소개하고 있다.

장장 춘일 낫즘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미팔즈로 무상 출입 미일 장취 계 트림과
 이리 모야 노름 놀기 저리 모야 투전(鬪錢)질에

기성첩 치가(治家)호고 외입장이 친구로다.
 스랑의는 조방(助幫)군이 안방의는 노구(老嫗)할미.
 명조상(名祖上)을 썩세허고 세도 구멍 기웃 기웃,
 염냥(炎涼) 보아 진봉(進奉)허기 지업(財業)을 싸불니고
 허욕(虛慾)으로 장스허기 남의 빚시 티산이라.
 니 무식은 싱각 안코 어진 사람 미워허기,
 후(厚)헐 데는 박허야서 한 푼 돈의 짬이 나고,
 박헐 데는 후허여서 슈빅 량이 헛것시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壓之)하니 반복 소인(反覆小人) 허기진다.
 니 몸에 리(利)헐 디로 남의 말틀 탄치 안코
 친구 벗슨 조화허며 제 일가는 불목(不睦)허며,
 병 날 노릇 모다 허고 인습 녹용 몸 보(補)키와
 주식 잡기 모도 허야 돈 주정을 무진허네.
 부모 조상 도망(頓望)허여 계집 즈식 지물 슈탐
 일가친척 구박허며 니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좁아닌다.
 니 hing세는 기치반에 경계판(警戒板)을 질머지고
 업는 말도 지여 니고 시비의 선봉(先鋒)이라.
 날 디 업는 용전 여슈(用錢如水) 상하 텅석(上下撐石)허야 가니
 손님은 초객(債客)이요 윤의(倫義)는 니 몰네라.
 입구멍이 제일이라 돈 날 노릇 허야 보세.
 전답 파라 변돈 주기, 종을 파라 월슈(月收) 주기
 구목(丘木) 버혀 장스허기, 셔칙 파라 빚 주기와
 동니 상놈 부역이요, 먼 데 사람 헿악이며
 좁아오라 썩물니라 즈장격지(自將擊之) 몽둥이질,
 전당(典當) 좁고 세간 썩기 계집 문서 중 습기와
 살 결박(結縛)에 소 썩기와 불호령에 쏫 썩기와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 인심(積失人心) 허겟고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허는 소리로다. 이스나 허야 불가.
 가장(家藏)을 다 파라도 상팔십이 니 팔즈라.
 종손 핑계 위전(位田) 파라 투전질이 싱이로다.
 제스 핑계 제기(祭器) 파라 관즈 구설(官災口舌) 이려는다.
 뒤라셔 도라 불가 독부(獨夫)가 되단 말가
 가련타 저 인싱아 일쥬 걸기이라.
 디모 관즈(玳瑁貫子) 어디 가고 물네줄은 무삼 일고.
 통냥갓슨 어디 가고 현 파림(破笠)에 통모즈라.
 주체로 못 먹든 밥 칩넉 보아 밥 먹는다.
 양복기는 어디 가고 쓴바귀를 단 쓸 싸듯,
 죽넉고(竹瀝膏) 어디 가고 모쥬 한 잔 어려워라.
 울타리가 썩나무요 동니 소곰 반찬일세.
 각장 장관 소라 반즈 장지문이 어디 가고
 벽 썩러진 단간방의 거적즈리 열두 님에
 호적 조회 문 바르고 신주보(神主祿)가 갓슨이라.
 은안 준마 어디 가며 선후 구종(驅從) 어디 간고.
 석시 집신 집형이에 정강말이 제격이라.
 습습 보선 티셔희가 어디 가고 슬레발이 불상허고,
 비단 주머니 십륙스븐 화류 면경(樺榴面鏡) 어디 가고
 보선목 주머니에 습노스븐 썩여 츄고,
 돈피 비즈 담뱃 휘양 어디 가며 룡라 주의 어디 간고.
 동지 셋달 배창웃세 습복다름 바지거죽

궁둥이는 울근불근 엮거름질 병신갓치
 담비 엮는 빈 연죽을 소일조로 손의 들고
 어숙비숙 다니면서 남에 문전 걸식하며
 역질 핑계 제스 핑계 야속허다 너의 인심 원망헐스 팔즈타령.
 저 건너 똥싱원은 제 아버의 덕분으로 돈 천이나 가졌드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디접 호얏든가
 쥬져 넘게 아는 체로 음양 술슈 탐호호야
 당발복 구산하기 피란곳 츠져 가며
 울 격 갈적 횡노상에 처즈식을 호허 녹코
 유무 상조 아니허면 조석 난계 헐 슈 업다.
 사인취물 허자 허니 두 번지난 아니 속고
 공납 범용 허자 허니 일가집에 부즈업고
 쓴 지물 경영허고 경향 업시 쓰다니며
 지상가의 청질허다 봉변허고 물너서고
 남의 골의 걸티 갖다 혼검의 쫓겨 와서
 혼인 중미 혼즈 들다 무럼 보고 썸 마즈며
 가더 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잣바지기
 불리 형세 씨그령이 위조 문서 비리 호송
 부즈나 후려 불가 감언 니설 피야 보세.
 엇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드리로변에 식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세기
 남북촌에 쭈장이로 인물 초인 호야 불가.
 산진미 슈진미에 산양질노 놀러갈 제
 디종손 양반 즈랑 산소나 파라 불가
 혼인 핑계 어린 쌀은 빅양 쓰리 되얏구나
 안악은 친정 사리 즈식드른 고싱사리
 일가에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드러 불가.
 산너머 똥싱원은 그야말이 호우로다
 거드러셔 한 말 즈랑 디장부의 결기로다
 동니존장 몰나 보고 이소 능장 욱허기와
 의관 열파 사람 치고 마자짜기 썰쓰기와
 남의 과부 겁탈허기 투장 간 곳 청병허기
 친척집에 소 끌기와 쥬먹다짐 일슈로다
 부즈집의 긴허 체로 친헌 사람 이간질과
 월슈돈 일슈돈 장별리 장체기며
 제 부모의 몹쓸 헝스
 투전군은 조화허며 손목잡고 술권허며
 제 쳐즈는 몰나 보고 노리기로 정표 쥬며
 즈식 노릇 못허면서 제 즈식은 귀이 알며
 머나리는 들복그며 봉양 잘못 허령헌다
 기동 베고 벽 썩러라 텃하 난봉 즈칭허니
 붓그림을 모르고셔
 쥬리틀려 경친 것슬 옷슬 벗고 즈랑허며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스랑이라
 늘근 부모 병든 쳐즈 손톱 발톱 제쳐가며
 즈 못 즈고 김습 헐 것 술 니기로 장괴두고
 칩망 업시 바린 몸이 무상 싱이 못 허여서
 누의 즈식 족하 즈식 식주가로 환미허며

부모가 걱정허면 와락 더라 부르디며
 안악이 스설허면 밥상 치고 계집치기
 도망산의 피를 썼나 저녁 굶고 쏘 나간다
 포청 귀신 되였는지 듯도 보도 못헐네라.

〈6행〉부터 〈109행〉까지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의 도덕적 타락상이 열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욱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개똥이’는 타락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면서도 스스로 체면을 깎아 먹고, 경제 감각보다는 단순 물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며, 덕망 있는 사람을 시기하며 이 해타산에 따라 사람을 사귄다. 친척들에게는 배타적이고 부모와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덕을 바란다. 사악하기보다는 그저 잔한 인물이다. 양반이라는 신분의 특권을 내세워 일하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해대며 유흥가나 들락거리는 한심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교재 수록된 부분은 〈36행〉까지인데 뒤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할 부분은 〈36행〉과 〈110〉행으로 〈36행〉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110행〉은 ‘우부’들의 패가망신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저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양반의 타락상으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은 양반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부가〉의 구조와 그에 따른 교훈은 양반 신분을 반면교사 취급하는 비판(비난)의 기술이기도 하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 경제적 몰락,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등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가사이다.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인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을 등장시켜 무위도식하거나 분별없이 행동하고 체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여 조선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어리석은 사나이[愚夫]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어리석은 사나이로는 ‘개똥이’·‘꿈생원’·‘공생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에 따라 작품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개똥이의 행적이 작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나머지 꿈생원과 공생원의 행적은 개똥이와 동질적이어서 개똥이의 행적에 대한 부연과 확대 또는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똥이의 행적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다시 전반과 중반·후반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의 모티프는 부모덕에 재산이 많았는데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중반의 모티프는 살아가기 위하여 돈을 벌겠다고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였다는 것이다. 후반의 모티프는 돈벌이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모티프는 유교적 규범을 저버린 망나니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점강적(漸降的)인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가사에서 개똥이의 거침없는 행동, 상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행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은 이 작품이 단순히 유교적 규범을 교훈하자는 의도 외에도 숨은 주제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숨은 주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드러나 있으므로, 작자의 의도나 표면에 강조된 주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표면의 주제와는 달리 봉건적 이념이나 규범을 개똥이의 생생한 부정적 행위를 통하여 파괴하고 있다.

중요도 : 중

수능특강 283p 동짓달 지나긴 밤을~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입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기다림

- ① 음성 상징어 [Ex. ‘구비구비’]
- ②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Ex. 시간을 천에 비유]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이 작품의 화자는 입과 헤어진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인데 시간을 천에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어’에서 시간의 한 부분을 베어내어 ‘봄’이라는 이불 밑에 넣어줬다가 그리운 입을 만나면 꺼낸다는 발상은 입과 떨어져 있는 부정적 시간은 줄이고 그 시간을 입을 만났을 때 써서 입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담은 표현이다. 다만, 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입과 헤어진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 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입에 대한 애뜻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시조 중 연정가(戀情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입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하여 긍정적 시간인 입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임권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시조이다. 이 작품은 발상의 참신함으로 유명하다. ‘밤의 허리’, ‘춘풍 이불’ 등의 기발한 비유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기발한 표현력은 황진이 의 문학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서리서리와 굽이굽이’ 등의 의태어를 활용한 대조기법도 주목할 만하다.

중요도 : 상

수능특강 304p 북천가(北遷歌)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 하고
오십에 등과하여 백수 흥진 무삼일꼬
공명이 늦으나마 행세나 약바르지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되어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건마는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소 한 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컥한다
어와 황송할사 천위가 진노하사
삭탈관직 하시면서 엄치하고 꾸중하니
운박한 이 신명이 고원으로 돌아갈새
추풍에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명천정배 놀랍도다
창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하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이천리라
두루막에 흰 띠 띄고 북천을 향해서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뉘 알리
사람마다 당케 되면 울음이 나련마는
군은을 갓으리라 쾌함도 쾌할시고
인신이 되었다가 소인의 참소 입어
엄지를 봉승하여 절역으로 가는 사람
천고에 몇몇이며 아조에 그 뉘런고
칼짚고 일어서서 술 먹고 노래하니
이천리 적객이라 장부도 다 울시고
좋은 듯이 말을 하니 명천이 어디맨가
더위는 홀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장이 뒤에 서고 청노는 앞에 두고
익경원 내달아서 다락원 잠간 쉬어
축성령 넘어가니 북천이 멀어간다
슬프다 이내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피시다가
일조에 정을 떼고 천애로 가겠구나
구중을 침망하니 운연이 아득하고
종남은 아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물 건너고 재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양주땅 지난 후에 포천읍 길가이고
철원 지경 밟은 후에 정평읍 건너 보며
금화금성 지난 후는 회양읍 막죽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으구라
회양서 중화하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험한 청산이요 축도 같은 길이로다
요란한 운무중에 일색이 끝이 난다
남여를 잡아 타고 철령을 넘는구나

수목이 울밀하여 엮어지락 자빠지락
 중허리에 못올라서 황혼이 거의로다
 상상봉 올라서니 초경이 되었구나
 일행이 허기져서 기장떡 사먹으니
 떡맛이 이상하여 향기롭고 아름답다
 햇불을 신칙하여 화광중에 내려가니
 남북을 몰랐으니 산형을 어이 알리
 삼경에 산을 내려 탁막에 잠을 자고
 새벽에 떠나서서 안변읍 어디때뇨
 할일 없는 내 신세야 북도적객 되었구나
 함경도는 초면이요 아태조 고토로다
 산천이 광활하고 수목이 만야한데
 안변읍 들어가니 본관이 나오면서
 포진병장 신칙하고 공식을 공궤하니
 시원케 잠을 자고 북향하여 떠나가니
 원산이 여기런가 인가도 굉장하다
 바다 소리 요란한데 물화도 장할시고
 덕원읍 중화하고 문천읍 숙소하고
 영흥읍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태조대왕 태지로서 총총 가거뿐이로다
 금수산천 그림 중에 바다 같은 관새로다
 선관이 즉시 나와 위로하고 관대하며
 점심상 보낸 후에 채병화연 등대하니
 죄명이 몸에 있어 치하고 환송한 후
 고원읍 들어가니 본수령 오공신은
 세의가 자별키로 날 보고 반겨 하네
 천대객지 날 반길이 이 어른뿐이로다
 책방에 맞아들여 음식을 공궤하며
 위로하고 다정하니 객회를 잊겠구나
 북마 주고 사령 주고 행자 주고 의복 주니
 잔음행세 생각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능신하고 발행하니 운수도 고이하다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린고
 하늘 같은 저 철령은 향국을 막아 있고
 저승같은 귀문관은 울연히 쉬었구나
 표풍 같은 이내 몸이 지향이 어디때뇨
 초원역 중화하고 함흥 감영 들어가니
 만세교 긴 다리는 십리를 뻗어있고
 무변대에 창망하여 대야를 들러 있고
 장강은 도도하여 만고에 흘렀구나
 구름 같은 성첩보소 낙빈루 높고 높다
 만인가 저녁연기 추강에 그림이요
 서산에 지는 해는 원객이 시름이다
 술 잡고 누에 올라 칼 만지며 노래하니
 무심한 뜬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의한 강적 소리 객회를 더쳤세라
 사향한 이내 눈물 장강에 던져 두고
 백청루 내려와서 성내에서 잠을 자니
 서울은 팔백리요 명천은 백구리라

비 맞고 유삼 쓰고 함관령 넘어가니
 영태도 높거니와 수목도 더욱 장타
 남여는 날아가고 대로는 설였구나
 노변에 섰는 비석 비각단청 요조하다
 태조대왕 소시절에 고려국 장수되어
 말갈에 전승하고 공덕이 어제 같다
 역말을 갈아 타고 흥원읍 들어가니
 무변해색 들렀는데 읍양이 절묘하다
 중화하고 떠나 서니 평포역 숙소로다
 내 온 길 생각하니 처만리 되었구나
 실 같은 목숨이요 거미 같은 근력이라
 천천히 길을 가면 살고서 볼 것인데
 엄지를 뒀으니 일신들 지체하라
 죽리를 가라시고 수화를 불분하니
 만신에 땀이 돌아 성중 지경 되었구나
 골수에 든 더위는 자고 새면 설사로다
 나장이 하는 말이 나오리 거동 보소
 엄엄하신 기력이요 위태하신 신관이라
 하루만 조리하여 북청읍에 목사이다
 무식하다네 말이야 엄지 중일신이라
 생사를 생각하라 일시를 유체하라
 사람이 죽고 살기 하늘에 달렸으니
 네 말이 기특하나 가다가 보자꾸나
 북청서 유소하고 남송정 돌아드니
 무변대해 망망하여 동천이 가이 없다
 만산은 첩첩하여 남향이 아득하다
 마곡역 중화하고 마천령 다다르니
 안박재 육십리라 하늘에 맞닿았고
 공중에 걸린 길은 참바같이 설였구나
 달래덤불 엮혔으니 천일이 밤중 같고
 층암이 위태하니 머리 위에 떨어질 듯
 하늘인가 땅이런가 이승인가 저승인가
 상상봉 올라서니 보이는 게 바다이고 넓은 것이 바다이다
 몇 날을 길에 있어 이 재를 넘었던고
 이 영을 넘은 후에 고향 생각 다시 없네
 천일만 은근하여 두상에 비쳤구나
 원평읍 중화하고 길주읍 들어가니
 성곽도 장커니와 여염이 더욱 좋다
 비올 바람 일어나니 떠날 길이 아득하다
 읍내서 목자하니 본관패 불안하다
 원 나오고 책방 오니 초면이 친구 같다
 음식은 먹거니와 포진 기생 불관하다
 엄지를 뒀으니 꽃자리 불관하고
 죄명을 가졌으니 기생이 호화롭다
 운박하온 신명 보면 분상하는 상주로다
 기생을 물리치고 금연을 걷어내니
 본관이 하는 말이 영남양반 고집이라
 모우하고 떠나 서니 명천이 육십리라
 이 땅을 생각하면 목특의 고토로다

황사의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총이요
 팔십리 광연못은 소부의 만양도다
 회홍동 이릉되는 지금의 원억이요
 백용해 때문관은 앞재 같고 뒷피 같다
 고참역마 잡아타고 배소를 들어가니
 인민은 번성하고 성곽은 웅장하다
 여각에 들어앉아 패문을 붙인 후에
 맹동원의 집을 물어 본관더러 선하니
 본관 전갈하고 공형이 나오면서
 병풍 자리 주물상을 주인으로 대령하고
 육각 소리 앞세우고 주인으로 나와 앉아
 처소에 전갈하여 피셔오라 전갈하네
 슬프다 내 일이야 꿈에나 들었던가
 이곳이 어디매냐 주인의 집 찾아 가니
 높은대문 넓은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의 이번 정배
 죄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형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жат구나
 호반의 규모런가 활협도 장하도다
 그러나 내 일신이 귀적한 사람이라
 화광빈객 꽃자리에 기락이 무엇이나
 규문에 퇴송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성내의 선비들이 문풍하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인 되었구나
 책 끼고 청학하니 글제 내고 고쳐지라
 북관에 있는 수령 관장만 보았다가
 문관의 풍성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한들 모면할 길 전혀 없네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글이로다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라 시주에 회포 붙여
 불출문의 하오면서 편케편케 날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남천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개가죽 상하착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의 조석이라
 본관의 성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렸더니
 천만의외 가신 오며 명녹이 왔단 말까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절세에 있던 사람 향간에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이 몇 장이고
 폭폭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래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파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그중에 사람 죽어 돈몰이 되단 말까
 명녹이 대코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떠난지 오래거든 그후 일을 어이 알리
 만수천산 멀고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녹아 말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집 사람더러 살았더라 전하여라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거연히 추석이라 가가이 성묘하네
 우리 곳 사람들도 소분을 하나니라
 본관이 흐는 마리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名勝地)라 금강산과 갖치 치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訪水尋山) 엇더흐고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흐다
 원지(遠地)에 쫓긴 몸이 형승의 노는 일이
 분의*에 미안흐고 침령(瞻聆)*의 괴이(怪異)흐니
 막음의 조권마는 못 가기로 작정흐니
 주슈(主首)의 흐는 마리 그러치 아니흐다
 악양루 황강경(黃岡景)은 왕등의 스적이오*
 적벽강 제적(在謫) 놀음 구소의 풍정이니
 김학스 칠보산의 무슨 힘이 잇스리오
 그 말을 반겨 듯고 황연이 이러느셔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드러가니
 구름 갓흔 천만 봉이 화도강산 광경이라
 박달령 넘어가서 금장동 들어가니
 곳곳의 물소리는 백옥을 깨쳐 있고
 봉봉의 단풍 빛은금수장을 들렀세라
 남여를 높이 타고 개심사에 들어가니
 원산은 그림이오 근봉은 물형이라
 육십명 선비들이 앞서고 뒤에 서니
 풍경도 좋거니와 광경이 더욱 장타
 창망한 지난 회포 개심사에 들어가서
 밤 한 경 새운 후에 미경에 일어나서
 소쇄하고 물을 여니 기생들이 앞에 와서
 현신하고 하는 말이 본관사도 분부하되
 김교리님 칠보산에 너 없이 놀음 되랴
 당신은 사양하되 내 도리에 그럴소냐
 산신도 섭섭하고 원학도 슬프리라
 너희들을 송거하니 나오린들 어찌하랴
 부디부디 조심하고 칠보청산 거행하다
 사도의 분부 끝에 소녀들이 대령하오
 우습고 부끄럽다 본관의 정성이여
 풍류남자 시주객은 남관에 나뿐인데
 신선의 곳에 와서 너를 어찌 보내리오
 이왕에 너희들이 칠십리를 등대하니
 풍류남자 방탕성이 매몰하기 어려왜라
 방으로 들라하여 이름 묻고 나 물으니

한 년은 매향인데 방년이 십팔이요
 하나는 군산월이 십구세 꽃이로다
 화상 불러 음식 하고 노래시켜 들어보니
 매향의 평우조는 운우가 흠어지고
 군산월의 해금소리 만학청봉 푸르도다
 지로승 앞세우고 두 기생 옆에 끼고
 연화만곡 깊은 곳에 올라가니
 단풍은 비단이요 송성은 거문고라
 상상봉 노적봉과 만사암 천불암과
 탁자봉 주작봉은 그림으로 둘러지고 물형으로 높고 높다
 아양곡 한 곡조를 두 기생 불러내니
 만산이 더 높고 단풍이 더 붉도다
 옥수로 양금 치니 송풍인가 물소리가
 군사월의 손길 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춘산에 풀손인가 안동밭골 금랑인가
 양금 위에 노는 손이 보드랍고 알스럽다
 남녀 타고 전향하여 한 마루 올라가니
 아까 보던 산모양이 홀지에 환영하여
 모난 불이 둥그렇고 희던 바위 푸르구나
 절벽에 새긴 이름 만조정 물색이라
 산을 안고 들어가니 방선암이 여기로다
 기암괴석 첩첩하니 갈수록 황홀할사
 일리를 들어가니 금강굴 이상하다
 차아한 높은 굴이 석색창태 새로워라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 향하다가
 두 기생 간 데 없어 찾느라 골몰터니
 어디서 일성가곡 중천으로 일어나니
 놀라서 바라보니 회상대 올라 앉아
 일지단풍 꺾어 쥐고 녹의홍상 고은 몸이
 만장암 구름 위에 사람을 놀렷시고
 어와 기절하다
 이 몸이 이른 고지 신선의 지경(地境)이라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하여
 바람의 붓친 다시 이 광경 보깃고나
 연적봉 지는 후(後)의 선녀를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회는 청천(靑天)의 소스 있고
 비바회 서책봉(書冊峯)은 안전의 버러 있고
 신향봉 보슬봉은 신선의 굴혈이라
 미향은 술을 들고 만장운 한 곡조요
 군산월 안즌 거동(擧動) 아조 분명 쫓치로다
 오동 복판 거문고의 금스로 줄을 메와
 더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곱거니와
 섬섬(纖纖)한 손길 싹히 오식이 영농하다
 네 거동 보고 느니 군명(君命)이 엄(嚴)하여도 반홀 번 흐깃고나
 영웅절스(英雄節士) 업단 말은 사칙(史冊)에 잇느니라
 니 마암 단단하나 네게야 큰말하라
 본 거시 큰 병(病)이요 안 본 거시 약(藥)이런가
 이천 리 절시(絶塞) 중의 단정이 몸 가지고
 거적(居謫)을 잘흔 거시 아조 모도 네 덕(德)이라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산승(山僧)의 촌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도라오니 호상대 노든 일이
 전성인가 몽중인가 국은(國恩)인가 천은(天恩)인가
 천애(天涯)에 이 형식이 이럴 줄 아라던가
 흥진하여 도라와서 슈노(首奴) 불러 분부히되
 칠보산 유산시는 본관이 보니기로
 기성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하니 호화한중(豪華閑中)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
 선비만 다리고서 시주(詩酒)의 기록하니
 청산이 그림 되야 술존의 썩러지고
 녹슈는 기리 되야 조희 우희 단청이라
 군산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찢엳고나 솜이로다
 일월이 언제던고 구월구일 오늘이라
 광한림 이적선은 용산에 높이 쉬고
 조선의 김학사는 재덕산에 올랐구나
 백주향화 앞에 놓고 남향을 상상하니
 북병산 단풍경은 김학사 차지요
 이하의 황국화는 주인이 없었구나
 파리한 늙은 아내 술을 들고 슬프던가
 추월이 낮 같으니 조운의 회포로다
 칠보산 반한 늬이 소무굴 보려하고
 팔십리 경성땅에 구경차로 길을 떠나 창연히 들어가니
 북해상 대택중에 한가하고 외로워라
 추강은 가 없는데 갈 꽃은 슬프도다
 창과는 망망하여 회색을 연하였고
 낙엽은 분분하여 청공에 나렸구나
 충신의 높은 자취 어디가서 찾아보라
 어와 거록할사 소중량 거록할사
 나도 또한 이럴망정 주상님 멀리 떠나
 절역에 몸을 던져 회포도 슬프더니
 오늘날 이 섬위에 정성이 같았구나
 낙일에 칼을 잡고 후리쳐 돌아서니
 병산의 풍설중에 축도 같은 길이로다
 귀문관 돌아서니 음침하고 고이하다
 삼척을 드러서니 일신이 송구하다
 노방에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총인가
 처량한 어린 혼이 백야에 슬프도다
 춘풍에 한을 먹고 흥염을 울렸구나
 쟁쟁한 환패 소리 월야에 우느니라
 술 한 잔 가뜩 부어 방혼을 위로하고
 유정으로 들어가니 명천음이 십리로다
 탄막에 들렀다가 경방자 달려드니
 무슨 기별 왔다던고 방환 기별 나렸도다
 천은이 망극하여 눈물이 망망하다
 문적을 손에 쥐고 남향하여 백배하니
 동행의 거동 보소 치하하고 거록하다
 식전에 말을 달려 주인을 찾아가니
 만실이 경사로다 광경이 그지없다

죄명이 없었으니 평인이 되었구나
 천은을 덮어쓰고 양계를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행장을 재촉할 제 군산월이 대령한다
 선연한 거동으로 웃으면서 치하하네
 나으리 해배하니 작히작히 감축할까
 칠보산 우리 인연 춘몽이 아득하다
 이날에 너를 보니 그것도 군은인가
 그랬다가 만난 정이 맛 나고도 향기롭다
 본관의 거동 보소 삼현육각 거느리고
 이곳을 나오면서 치하하고 손 잡으며
 김교린가 김학산가 성군의 은택인가
 나도 이리 감축커든 임자야 오죽할까
 홍문 교리 정든 사람 일시라 전케하라
 지금으로 제안하고 그 길로 나왔노라
 이다지 생각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군산월을 다시 보니 새 사람 되었구나
 형극중에 씻긴 난초 옥분에 읊겼구나
 진애의 야광주가 박물군자 만났구나
 신흥에 물힌 칼이 뒤를 보고 나왔더냐
 꽃다운 어린 자질 임자를 만났구나
 금병화축 깊은 밤에 광풍제월 닭 밝은 날
 글 지으며 화답하고 술 가지면 동배하니
 정분도 깊거니와 호사도 그지없다
 시월에 말을 타고 고향을 찾아 가니
 본관의 성덕 보소 남북 짓고 종 보내며
 이백량 횡재 내어 저 하나 따라주며
 거행에 하는 말이 피시고 잘 가거라
 나으리 유경시에 네게야 내외할까
 천리강산 대로중에 김학사 꽃이 되어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 좋게 잘 가거라
 승교를 앞세우고 풍류남자 뒤 따르니
 오던 길 넓고 넓어 귀흥이 그지 없다
 길주읍 들어가니 본관의 거행 보소
 금연화축 넓은 방에 기락이 가득하다
 군산월이 하나이다 풍정이 가득하다
 연연한 군산월이 금상첨화 되었구나
 신조에 발행하여 익병에 중화하고
 창해는 망망하여 동천에 그지없고
 병산은 중중하여 면면이 섭섭도다
 추풍에 채를 들고 성진을 들어가니
 북병사 마주 나와 두 군관 합석하니
 상읍관가 군병이오 길주 관청 흥안이라
 금축이 영롱한데 병사의 호강이라
 북관이 하는 말이 학사에 다린 사람
 얼굴이 기이하다 서울젠가 북도젠가
 청직인가 방자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손 보고 눈대보니
 남중일색 처음보네 웃으며 대답하되

봉도 아이 데려다가 밤중에 읊긴 후에 장가들어 살리겠소
 종적을 감추우고 풍악중에 앉았으니
 병사가 취한 후에 소리를 크게 하되
 김교리 청직이야 내곁에 이리 오라
 위령을 못하여서 공손히 나아드니
 손내 어라 다시 보자 어찌 그리 기이한고
 총모피 털토시에 옥수를 반만 내어
 덤석 드리 쥐라할제 빠치고 일어서니
 계집의 좁은 소견 미련코 매물하다
 사나이 모양으로 손달라면 손을 주고
 혼연하고 천연하면 위여위여 하련마는
 가뜩이 수상하여 치보고 내려보고
 군관이나 기생이나 면면이 보던 차에
 매물이 빠치는 양 제 버릇 없을소냐
 병사가 눈치 알고 몰랐노라 몰랐노라
 김학사의 아내신 줄 내 정영 몰랐구나
 만당이 대소하고 못 기생이 달려드니
 아까 썼던 남자몸이 계집통정 하겠구나
 양색단 두루막이 옥판 달아 애암쓰고
 꽃밭에 섞여 앉아 노래를 받아 주니
 청강의 옥동인가 화원의 범나비냐

닭 울며 일출 구경 망양정 올라가니
 금축에 꽃이 피고 옥호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동해를 건너보니
 일색이 오르면서 당홍바다 되는구나
 부상은 지척이오 일광은 술회로다
 대풍악 잡아 쥐고 태산을 굽어 보니
 부유 같은 이 내 몸이 성은도 망극하다
 북관을 몰랐다면 군산월이 어찌 올라
 병사를 이별하고 마천령 넘어간다
 구름 위에 길을 두고 남여로 올라가니
 군산월이 앞세우고 안전에 꽃이 피고
 군산월이 뒤세우면 후면에 선동이라
 단천에 중화하고 북청읍 숙소하니
 반야에 깊은 정은 금석 같은 언약이오
 태산 같은 인정이라 흥원에 중화하고
 영흥읍에 숙소하니 본관이 나와 보고 밥 보내고 관대하네
 고을도 크거니와 기악도 끔찍하다
 대풍악 파한 후에 행절이만 잡아두니
 행절이 거동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청수부용 평신이오 운우양대 태도로다
 효두에 발행하여 고원을 들어가니
 주수의 반기는 양 내달아 손 잡으며 경사를 만났구나
 문천에 중화하고 원산장터 숙소하니
 명천이 천여리요 서울이 육백리라
 주막집 깊은 밤에 밤한경 새운 후에
 계명시에 소쇄하고 군산월을 깨워내니
 몽롱한 해당화가 이슬에 휘젓는 듯

괴코도 아름답다 유정하고 무정하다
 옛일을 이룰 게니 네 잠간 들어봐라
 이전에 장대장이 제주목사 과만 후에
 정들었던 수청기생 버리고 나왔더니
 바다를 건는 후에 차마 잊지 못하여서
 배 잡고 다시 가서 기생을 불러내어
 비수 빼어 버린 후에 돌아와 대장 되고
 만고명인 되었으니 나 본래 문관이라
 무변과 다르기로 너를 도로 보내는 게 이것이 비수로다
 내 본래 영남 있어 선비의 졸한 몸이
 이천리 기생 싣고 천고에 없는 호강
 끝나게 하였으니 험기하고 서울 가면
 분의에 황송하고 모양이 고약하다
 부디부디 잘 가거라 다시 볼 날 있으리라
 군산월이 거동보소 깜짝이 놀라면서
 원망으로 하는 말이 버릴 심사 계셨으면
 중간에 못하여서 어린 사람 호려다가
 사무친척 외론 곳에 계발몰어 던지시니 이런 일도 하나있가
 나으리 성덕으로 사랑이 배부르나
 나으리 무정기로 풍전낙화 되었구나
 오냐 오냐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여
 십리만 가자더니 천리나 되었구나
 저도 부모 있는 고로 원리한 심회로서
 웃으며 그리 하오 눈물로 그리 하오
 효색은 은은하고 추강은 명랑한데
 흥상에 눈물 내려 학사두발 희겠구나
 승교에 담아내어 저 먼저 회송하니
 천고에 악한 놈 나 하나 뿐이로다
 말 타고 돌아서니 이목에 삼삼하다
 남자의 간장인들 인정이 없을소냐
 이천리 장풍유를 일조에 놓쳤구나
 풍정도 잠간이라 흥진비래 되었구나
 안변원이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무정하오
 판관사도 무섭던가 남의 눈이 무섭던가
 장부의 헛된 간장 상하기 쉬우리라
 내 기생 봉선이를 남북시켜 앞세우고
 철령까지 동행하여 회포를 잊게 하소
 봉선이를 불러드려 따라가라 분부하니
 자색이 옥골이라 군산월이 고은 모양
 심중에 깊었으니 새낫보고 잊을소냐
 풍설이 아득한데 북천을 다시 보니
 춘풍에 아는 꽃이 진흙에 구르다가
 추천의 외기러기 짝없이 가는 이라
 철령을 넘을 적에 봉선이를 하직하고
 에꾸즌 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이별이라
 조히 있고 잘 가거라 다시 어찌 못 만나랴
 남여로 내 녀으니 북도산천 끝이 난다
 서름도 지나가고 인정도 끝이 나고
 풍류는 끝나가고 남은 것이 귀흥이라

회양에 중화하고 금화 금성 지난 후에
 영평읍 들어가서 철원을 밟은 후에
 포천읍 숙소하고 왕성이 어디매뇨 귀흥이 도도하다
 갈 적에 녹음방초 올 적에 풍설이오
 갈 적에 백의러니 올 적에 청포로다
 적객이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술 먹고 마룻 타고 풍월도 절로 나고
 산 넘고 물 건너며 노래로 예 왔구나
 만사여생 이 몸이오 천고호걸 이 몸이라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반가워라
 중천에 솟았으니 귀흥이 높아 있고
 만수에 상화 피니 설상이 춘광이라
 삼각에 재배하고 다락원 들어가니
 관주인 마주 나와 우름으로 반길시고
 동대문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강할사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을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 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일촌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쁠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네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되야 남자를 부러말고
 이 내 노릇 하게되면 그아니 상쾌할가
 - 김진형, 「북천가(北遷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 ① 설의법 [Ex. 무슨 힘이 있스리오, 네게야 큰말흐랴, 흥식이 이럴 줄 아라던가]
- ② 대구법 [Ex. 본 거시 큰 병이요 안 본 거시 약이런가]
- ③ 적강(謫降) 모티프 [Ex.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의 자취하여]
- ④ 공간의 이동 [Ex.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 하고
 오십에 등과하여 백수 흥진 무삼일꼬
 공명이 늙으나마 행세나 약바르지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되어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건마는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소 한 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컥한다
 어와 황송할사 천위가 진노하사
 삭탈관직 하시면서 엄치하고 꾸중하니
 운박한 이 신명이 고원으로 돌아갈새
 추풍에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명천정배 놀랍도다
 창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하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이천리라
 두루막에 흰 띄 띄고 북천을 향해서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뉘 알리
 사람마다 당케 되면 울음이 나련마는
 군은을 갓으리라 쾌함도 쾌할시고
 인신이 되었다가 소인의 참소 입어
 엄지를 봉승하여 절역으로 가는 사람
 천고에 몇몇이며 아조에 그 뉘런고
 칼짚고 일어서서 술 먹고 노래하니
 이천리 적객이라 장부도 다 울시고
 좋은 듯이 말을 하니 명천이 어디맨가
 더위는 홀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장이 뒤에 서고 청노는 앞에 두고
 익경원 내달아서 다락원 잠간 쉬어
 축성령 넘어가니 북천이 멀어간다
 슬프다 이내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뵈시다가
 일조에 정을 떼고 천애로 가겠구나
 구중을 침망하니 운연이 아득하고
 종남은 아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물 건너고 재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양주땅 지난 후에 포천읍 길가이고
 철원 지정 밟은 후에 정평읍 건너 보며
 금화금성 지난 후는 회양읍 막죽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으구라
 회양서 중화하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험한 청산이요 축도 같은 길이로다
 요란한 운무중에 일색이 끝이 난다
 남여를 잡아 타고 철령을 넘는구나

수목이 울밀하여 엇어지락 자빠지락
 중허리에 못올라서 황혼이 거의로다
 상상봉 올라서니 초경이 되었구나
 일행이 허기져서 기장떡 사먹으니
 떡맛이 이상하여 향기롭고 아름답다
 햇불을 신칙하여 화광중에 내려가니
 남북을 몰랐으니 산형을 어이 알리
 삼경에 산을 내려 탁막에 잠을 자고
 새벽에 떠나서서 안면읍 어디매노
 할일 없는 내 신세야 북도적객 되었구나
 함경도는 초면이요 아태조 고토로다
 산천이 광활하고 수목이 만야한데
 안면읍 들어가니 본관이 나오면서
 포진병장 신칙하고 공식을 공궤하니
 시원케 잠을 자고 북향하여 떠나가니
 원산이 여기런가 인가도 굉장하다
 바다 소리 요란한데 물화도 장할시고
 덕원읍 중화하고 문천읍 숙소하고
 영흥읍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태조대왕 태지로서 총총 가거뿐이로다
 금수산천 그림 중에 바다 같은 관세로다
 선관이 즉시 나와 위로하고 관대하며
 점심상 보낸 후에 채명화연 등대하니
 죄명이 몸에 있어 치하고 환송한 후
 고원읍 들어가니 본수령 오공신은
 세의가 자별키로 날 보고 반겨 하네
 천대객지 날 반길이 이 어른뿐이로다
 책방에 맞아들여 음식을 공궤하며
 위로하고 다정하니 객회를 잊겠구나
 북마 주고 사령 주고 행자 주고 의복 주니
 잔음행세 생각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능신하고 발행하니 운수도 고이하다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린고
 하늘 같은 저 철령은 향국을 막아 있고
 저승같은 귀문관은 울연히 쉬였구나
 표풍 같은 이내 몸이 지향이 어디매노
 초원역 중화하고 함흥 감영 들어가니
 만세교 긴 다리는 십리를 뻗어있고
 무변대에 창망하여 대야를 들러 있고
 장강은 도도하여 만고에 흘렀구나
 구름 같은 성첩보소 낙빈루 높고 높다
 만인가 저녁연기 추강에 그림이요
 서산에 지는 해는 원객이 시름이다
 술 잡고 누에 올라 칼 만지며 노래하니
 무심한 뜬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의한 강적 소리 객회를 더쳤세라
 사향한 이내 눈물 장강에 던져 두고
 백청루 내려와서 성내에서 잠을 자니
 서울은 팔백리요 명천은 백구리라

비 맞고 유삼 쓰고 함관령 넘어가니
 영태도 높거니와 수목도 더욱 장타
 남여는 날아가고 대로는 설였구나
 노변에 섰는 비석 비각단청 요조하다
 태조대왕 소시절에 고려국 장수되어
 말갈에 전승하고 공덕이 어제 같다
 역말을 갈아 타고 흥원읍 들어가니
 무변해색 들렀는데 읍양이 절묘하다
 중화하고 떠나 서니 평포역 속소로다
 내 온 길 생각하니 처만리 되었구나
 실 같은 목숨이요 거미 같은 근력이라
 천천히 길을 가면 살고서 볼 것인데
 엄지를 피셨으니 일신들 지체하라
 죽리를 가라시고 수화를 불분하니
 만신에 땀이 돌아 성중 지경 되었구나
 골수에 든 더위는 자고 새면 설사로다
 나장이 하는 말이 나으리 거동 보소
 엄엄하신 기력이요 위태하신 신관이라
 하루만 조리하여 북청읍에 목사이다
 무식하다네 말이야 엄지 중일신이라
 생사를 생각하라 일시를 유체하라
 사람이 죽고 살기 하늘에 달렸으니
 네 말이 기특하나 가다가 보자꾸나
 북청서 유소하고 남송정 돌아드니
 무변대해 망망하여 동천이 가이 없다
 만산은 첩첩하여 남향이 아득하다
 마곡역 중화하고 마천령 다다르니
 안밖재 육십리라 하늘에 맞닿았고
 공중에 걸린 길은 참바같이 설였구나
 달래덤불 엮혔으니 천일이 밤중 같고
 층암이 위태하니 머리 위에 떨어질 듯
 하늘인가 땅이런가 이승인가 저승인가
 상상봉 올라서니 보이는 게 바다이고 넓은 것이 바다이다
 몇 날을 길에 있어 이 재를 넘었더니
 이 영을 넘은 후에 고향 생각 다시 없네
 천일만 은근하여 두상에 비쳤구나
 원평읍 중화하고 길주읍 들어가니
 성곽도 장커니와 여염이 더욱 좋다
 비올 바람 일어나니 떠날 길이 아득하다
 읍내서 목자하니 본관폐 불안하다
 원 나오고 책방 오니 초면이 친구 같다
 음식은 먹거니와 포진 기생 불관하다
 엄지를 피셨으니 꽃자리 불관하고
 죄명을 가졌으니 기생이 호화롭다
 운박하운 신명 보면 분상하는 상주로다
 기생을 물리치고 금연을 걷어내니
 본관이 하는 말이 영남양반 고집이라
 모우하고 떠나 서니 명천이 육십리라
 이 땅을 생각하면 목특의 고토로다

황사의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

〈북천가〉는 작가 김진형이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이조판서 서기
 순의 비리를 상소했다가 반대파에 몰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
 다. 이 작품은 유배 생활로부터 방면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읊은 가사이다. 내용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령을 받는 신세, 서
 울로부터 북관까지 가는 유배과정, 북관에서 그곳 수령의 융숭한
 대접과 칠보산 구경 및 기생 군산월과의 사랑, 북관에서부터 유배
 지 명천까지 이르는 과정, 명천에 도착하자마자 방면된 소식을 접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담고 있다.

작가가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풀려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만큼 감정의 절박함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가 없다. 모든 유배가 흔히 떠올리는 산발한 채 나졸들에게 붙잡
 혀 흠뻑 얼굴로 끌려다니는 신세는 아님을 잘 보여준다. 당대에는
 유배가사보다는 기행가사로 이 작품을 소비했으며 죄인 신분으로
 유명한 기생과 즐긴 행적을 늘어놓아 문학보다는 단순 흥밋거리로
 소비되었다.

내용이 심히 길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 작품의 구조로 파악하면
 크게 새로운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연계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행가사로 쓰자니 문학성이 뛰어난 기행가사는 충분히 많으며 유
 배 가사로 쓰자니 감정의 절박함이 없어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뚜
 렷하게 보이는 정서가 없다. 무고하게 유배를 당했다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기생과 함께 향락을 즐기며 유람까지 하는 모습을 조선
 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1행~156행까지는 참조를 당해 유배지로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담
 고 있다. 이후 도착한 북관에서 그곳 수령이 화자가 곧 복권될 것
 을 알기에 극진히 대접하며 미운털이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곳이 어디때냐 주인의 집 찾아 가니
 높은대문 넓은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의 이번 정배
 죄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형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갯구나
 호반의 규모런가 활협도 장하도다
 그러나 내 일신이 귀적한 사람이라
 화광빈객 꽃자리에 기락이 무엇이나
 규문에 퇴송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성내의 선비들이 문풍하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인 되었구나
 책 끼고 청학하니 글제 내고 고쳐지라
 북관에 있는 수령 관장만 보았다가
 문관의 풍성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한들 모면할 길 전혀 없네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클이로다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라 시주에 회포 붙여
 불출문의 하오면서 편케편케 날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남천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개가죽 상하착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의 조석이라
 본관의 성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렸더니
 천만의외 가신 오며 명녹이 왔단 말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절세에 있던 사람 향간에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이 몇 장이고
 폭폭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라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과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그중에 사람 죽어 돈몰이 되단 말까
 명녹이 대코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떠난지 오래거든 그후 일을 어이 알리
 만수천산 멀고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녹아 말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집 사람더러 살았더라 전하여라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거연히 추석이라 가까이 성묘하네
 우리 곳 사람들도 소분을 하나니라

수령에게 대접을 받는 상황 중 일부이다. 분명 138행에서 죄인 신분으로 기생을 부를 수 없다며 기생을 무르고 '영남 양반 고집'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생과 함께 놀고 화자를 보러온 60명의 선비와 함께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긴다.

본관이 흐는 마리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名勝地)라 금강산과 갖치 치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수심산(訪水尋山) 엇더하고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하다
 원지(遠地)에 쫓긴 몸이 형승의 노는 일이
 분의*에 미안하고 침령(瞻聆)*의 괴이(怪異)하니
 므옴의 조컨마는 못 가기로 작정하니
 주슈(主首)의 흐는 마리 그러치 아니하다
 악양루 황강경(黃岡景)은 왕등의 스적(斯蹟)이요*
 적벽강 제적(在謫) 놀음 구소의 풍정이니
 김학스 칠보산의 무슨 힘이 있스리오
 그 말을 반겨 듯고 황연이 이러느서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드러가니
 구름 갓흔 천만 봉이 화도강산 광경이라
 박달령 넘어가서 금강동 들어가니
 곳곳의 물소리는 백옥을 깨쳐 있고
 봉봉의 단풍 빛은금수장을 들렀세라
 남여를 높이 타고 개심사에 들어가니
 원산은 그림이요 근봉은 물형이라
 육십명 선비들이 앞서고 뒤에 서니
 풍경도 좋거니와 광경이 더욱 장타

기생들과 함께 논 다음 날 고을 수령인 본관은 화자에게 그 지역의 유명한 칠보산이 마치 금강산과 같이 아름답다며 유람을 제안한다. 그러나 화자는 마음에도 없는 죄인 신분 운운하며 타인의 평가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람을 거절하지만 본관은 고사를 인용하여 소동과도 귀양살이 도중 유람을 했다고 화자를 설득한다. 그제야 화자는 못 이기는 척 칠보산 유람을 한다.

창망한 지난 회포 개심사에 들어가서
 밤 한 경 새운 후에 미경에 일어나서
 소쇄하고 물을 여니 기생들이 앞에 와서
 현신하고 하는 말이 본관사도 분부하되
 김교리님 칠보산에 너 없이 놀음 되라
 당신은 사양하되 내 도리에 그럴소냐
 산신도 섭섭하고 원학도 슬프리라
 너희들을 송거하니 나오린들 어찌하랴
 부디부디 조심하고 칠보청산 거행하다
 사도의 분부 끝에 소녀들이 대령하오
 우습고 부끄럽다 본관의 정성이여
 풍류남자 시주객은 남관에 나뿐인데
 신선의 곳에 와서 너를 어찌 보내리오
 이왕에 너희들이 칠십리를 등대하니
 풍류남자 방탕성이 매몰하기 어려왜라
 방으로 들라하여 이름 묻고 나 물으니
 한 년은 매향인데 방년이 십팔이요
 하나는 군산월이 십구세 꽃이로다
 화상 불러 음식 하고 노래시켜 들어보니
 매향의 평우조는 운우가 훌어지고
 군산월의 해금소리 만학청봉 푸르도다
 지로승 앞세우고 두 기생 옆에 끼고
 연화만곡 깊은 곳에 올라가니
 단풍은 비단이요 송성은 거문고라
 상상봉 노적봉과 만사암 천불암과
 탁자봉 주작봉은 그림으로 둘러지고 물형으로 높고 높다
 아양곡 한 곡조를 두 기생 불러내니
 만산이 더 높고 단풍이 더 붉도다
 옥수로 양금 치니 송풍인가 물소리가
 군사월의 손길 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춘산에 풀손인가 안동밭골 금랑인가
 양금 위에 노는 손이 보드랍고 알스럽다

남녀 타고 전향하여 한 마루 올라가니
 아까 보던 산모양이 홀지에 환영하여
 모난 불이 둥그렇고 희던 바위 푸르구나
 절벽에 새긴 이름 만조정 물색이라
 산을 안고 들어가니 방선암이 여기로다
 기암괴석 첩첩하니 갈수록 황홀할사
 일리를 들어가니 금강굴 이상하다
 차아한 높은 굴이 석색창태 새로워라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 향하다가
 두 기생 간 데 없어 찾느라 골몰터니
 어디서 일성가곡 중천으로 일어나니
 놀라서 바라보니 회상대 올라 앉아
 일지단풍 꺾어 쥐고 녹의홍상 고은 몸이
 만장암 구름 위에 사람을 놀렷시고
 어와 기절하다

연계 교재에서 생략된 부분인데 읽어보면 생략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본관이 화자의 검은 속마음을 꿰뚫고 칠보산 유람에도 기생들을 보낸다. 화자는 이에 본관을 '우습고 부끄럽다'며 꾸짖지만 기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노래 부르라 시키고 같이 술 마시고 논다. 풍경에 대한 언급도 크게 없어서 읽는 학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몸이 이른 고지 신선의 지경(地境)이라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하여
 바람의 붓친 다시 이 광경 보겼고나
 연적봉 지는 후(後)의 선녀를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회는 청천(靑天)의 소스 있고
 비바회 서책봉(書冊峯)은 안전의 버러 있고
 신허봉 보슬봉은 신선의 굴혈이라
 미향은 술을 들고 만장운 한 곡조요
 군손월 안즌 거동(舉動) 아조 분명 솟치로다
 오동 복판 거문고의 금스로 줄을 메와
 디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곱거니와
 섬섬(纖纖)한 손길 싹히 오식이 영농하다
 네 거동 보고 느니 군명(君命)이 엄(嚴)하여도 반흔 번 흐릿고나
 영웅절스(英雄節士) 업단 말은 사칙(史冊)에 잇느니라
 니 마암 단단하니 네게야 큰말하라
 본 거시 큰 병(病)이요 안 본 거시 약(藥)이런가
 이천 리 절시(絶塞) 중의 단정이 몸 가지고
 거적(居謫)을 잘흔 거시 아조 모도 네 덕(德)이라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산승(山僧)의 촌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튼날 도라오니 호상대 노든 일이
 전성인가 몽중인가 국은(國恩)인가 천은(天恩)인가
 천애(天涯)에 이 횡길이 이럴 줄 아라던가
 흥진하여 도라와서 슈노(首奴)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시는 본관이 보니기로
 기성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하니 호화한중(豪華閑中)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
 선비만 다리고서 시주(詩酒)의 기록하니
 청산이 그림 되야 술존의 썩러지고
 녹슈는 기리 되야 조희 우희 단청이라
 군손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씨엿고나 솜이로다

화자는 칠보산 유람을 하며 칠보산을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평하며 감탄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도 전생에 죄를 지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환생했다며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한다. 칠보산 유람을 함께하는 기생 군손월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죄인 신분을 잊고 '반할 뻔'했다는 충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칙'에도 영웅이면서 절개를 지키는 선비는 없다며 죄인 신분으로 기생과 함께 논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여러모로 거를 타선이 없는 위인이다. '본 거시 큰 병이요 안 본 거시 약이런가'는 군손월의 아름다움에 반해 선비정신을 잃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대구이다. 심히 불순하지만 출제된다면 군손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실컷 기생들과 향락을 즐기고 나서는 다시는 기생과 놀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원지에 쫓긴 몸이~첨령의 괴이하니', '기성을 다려스나~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에서 유배당한 선비로서의 체면과 다른 이들의 비난을 의식함과 동시에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의 풍류 행위를 반성한다. 표면상 반성적 태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진심을 알 수 없다. 워낙 도중에 풀려날 것을 알고 당당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TMI로 마지막 행의 '솜이로다'라는 표현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갈릴 수도 있겠으나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조선 시대에는 문인들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쓴 글을 그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에 반영했다. 붓 한 번 잘못 놀렸다가 목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래서 강호한정가에 '역군은'이 빠지지 않는 것이며 임금을 좋아할 수 없을 만한 작가가 임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월이 언제던고 구월구일 오늘이라
 광한림 이적선은 용산에 높이 쉬고
 조선의 김학사는 재덕산에 올랐구나
 백주향화 앞에 놓고 남향을 상상하니
 북병산 단풍경은 김학사 차지요
 이하의 황국화는 주인이 없었구나
 파리한 늙은 아내 술을 들고 슬프던가
 추월이 낮 같으니 조운의 회포로다
 칠보산 반한 늙이 소무굴 보려하고
 팔십리 경성땅에 구경차로 길을 떠나 창연히 들어가니
 북해상 대택중에 한가하고 외로워라
 추강은 가 없는데 갈 꽃은 슬프도다
 창과는 망망하여 회색을 연하였고
 낙엽은 분분하여 청공에 나렸구나
 충신의 높은 자취 어디가서 찾아보라
 어와 거룩할사 소중량 거룩할사
 나도 또한 이럴망정 주상님 멀리 떠나

절역에 몸을 던져 회포도 슬프더니
 오늘날 이 섬위에 정성이 같았구나
 낙일에 칼을 잡고 후리쳐 돌아서니
 병산의 풍설중에 측도 같은 길이로다
 귀문관 돌아서니 음침하고 고이하다
 삼척을 드러서니 일신이 송구하다
 노방에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총인가
 처량한 어린 혼이 백야에 슬프도다
 춘풍에 한을 먹고 홍엽을 울렸구나
 쟁쟁한 환패 소리 월야에 우느니라
 술 한 잔 가뜩 부어 방혼을 위로하고
 유정으로 들어가니 명천읍이 십리로다
 탄막에 들렀다가 경방자 달려드니
 무슨 기별 왔다던고 방환 기별 나렸도다
 천은이 망극하여 눈물이 망망하다
 문적을 손에 쥐고 남향하여 백배하니
 동행의 거동 보소 치하하고 거룩하다
 식전에 말을 달려 주인을 찾아가니
 만실이 경사로다 광경이 그지없다
 죄명이 없었으니 평인이 되었구나
 천은을 덮어쓰고 양계를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행장을 재촉할 제 군산월이 대령한다
 선연한 거동으로 웃으면서 치하하네
 나오리 해배하니 작히작히 감축할까
 칠보산 우리 인연 춘몽이 아득하다
 이날에 너를 보니 그것도 군은인가
 그랬다가 만난 정이 맛 나고도 향기롭다
 본관의 거동 보소 삼현육각 거느리고
 이곳을 나오면서 치하하고 손 잡으며
 김교린가 김학산가 성군의 은택인가
 나도 이리 감축커든 임자야 오죽할까
 흥문 교리 정든 사람 일지라 전케하라
 지금으로 제안하고 그 길로 나왔노라
 이다지 생각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북관에서 즐거운 유흥이 끝난 이후 귀양길로 들어선다. 귀양길로 가는 동안 화자는 자신이 유배지로 떠나고 있음을 자각하며 우울한 감정을 표출한다. 주변 광경을 묘사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다 갑자기 화자의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과 임금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 애절하지 않은 전후 상황이기에 물입이 쉽지 않다만 화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다.

군산월을 다시 보니 새 사람 되었구나
 형극중에 씻긴 난초 옥분에 읊겼구나
 진애의 야광주가 박물군자 만났구나
 신평에 물힌 칼이 뉘를 보고 나왔더냐
 꽃다운 어린 자질 임자를 만났구나

금병화축 깊은 밤에 광풍제월 달 밝은 날
 글 지으며 화답하고 술 가지면 동배하니
 정분도 깊거니와 호사도 그지없다
 시월에 말을 타고 고향을 찾아 가니
 본관의 성덕 보소 남북 짓고 종 보내며
 이백량 횡재 내어 저 하나 따라주며
 거행에 하는 말이 되시고 잘 가거라
 나오리 유경시에 네게야 내외할까
 천리강산 대로중에 김학사 꽃이 되어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좋게 잘 가거라
 승교를 앞세우고 풍류남자 뒤 따르니
 오던 길 넓고 넓어 귀흥이 그지 없다
 길주읍 들어가니 본관의 거행 보소
 금연화축 넓은 방에 기락이 가득하다
 군산월이 하나이다 풍정이 가득하다
 연연한 군산월이 금상첨화 되었구나
 신조에 발행하여 익병에 중화하고
 창해는 망망하여 동천에 그지없고
 병산은 중중하여 면면이 섭섭도다
 추풍에 채를 들고 성진을 들어가니
 북병사 마주 나와 두 군관 합석하니
 상읍관가 군병이오 길주 관청 흥안이라
 금축이 영롱한데 병사의 호강이라
 북관이 하는 말이 학사에 다린 사람
 얼굴이 기이하다 서울겐가 북도젠가
 청직인가 방자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손 보고 눈대보니
 남중일색 처음보네 웃으며 대답하되
 봉도 아이 데려다가 밤중에 읊긴 후에 장가들어 살리겠소
 종적을 감추우고 풍악중에 앉았으니
 병사가 취한 후에 소리를 크게 하되
 김교리 청직이야 내결에 이리 오라
 위령을 못하여서 공손히 나아드니
 손내 어라 다시 보자 어찌 그리 기이한고
 총모피 털토시에 옥수를 반만 내어
 덩석 드리 쥐라할제 빼치고 일어서니
 계집의 좁은 소견 미련코 매물하다
 사나이 모양으로 손달라면 손을 주고
 혼연하고 천연하면 위여위여 하련마는
 가뜩이 수상하여 치보고 내려보고
 군관이나 기생이나 면면이 보던 차에
 매물이 빠치는 양 제 버릇 없을소냐
 병사가 눈치 알고 몰랐노라 몰랐노라
 김학사의 아내신 줄 내 정영 몰랐구나
 만당이 대소하고 못 기생이 달려드니
 아까 섰던 남자몸이 계집통정 하겠구나
 양색단 두루막이 옥판 달아 애암쓰고
 꽃밭에 섞여 앉아 노래를 받아 주니
 청강의 옥동인가 화원의 범나비냐

닭 울며 일출 구경 망양정 올라가니
 금촉에 꽃이 피고 옥호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동해를 건너보니
 일색이 오르면서 당홍바다 되는구나
 부상은 지척이오 일광은 술회로다
 대풍악 잡아 쥐고 태산을 굽어 보니
 부유 같은 이 내 몸이 성은도 망극하다
 북관을 몰랐다면 군산월이 어찌 올라
 병사를 이별하고 마천령 넘어간다
 구름 위에 길을 두고 남여로 올라가니
 군산월이 앞세우고 안전에 꽃이 피고
 군산월이 뒤세우면 후면에 선동이라
 단천에 중화하고 북청읍 숙소하니
 반야에 깊은 정은 금석 같은 언약이오
 태산 같은 인정이라 흥원에 중화하고
 영흥읍에 숙소하니 본관이 나와 보고 밥 보내고 관대하네
 고을도 크거니와 기악도 끔찍하다
 대풍악 파한 후에 행절이만 잡아두니
 행절이 거동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청수부용 평신이오 운우양대 태도로다
 효두에 발행하여 고원을 들어가니
 주수의 반기는 양 내달아 손 잡으며 경사를 만났구나
 문천에 중화하고 원산장터 숙소하니
 명천이 천여리요 서울이 육백리라
 주막집 깊은 밤에 밤한경 새운 후에
 계명시에 소쇄하고 군산월을 깨워내니
 몽롱한 해당화가 이슬에 휘젓는 듯
 괴코도 아름답다 유정하고 무정하다
 옛일을 이를 게니 네 잠간 들어봐라
 이전에 장대장이 제주목사 과만 후에
 정들었던 수청기생 버리고 나왔더니
 바다를 건는 후에 차마 잊지 못하여서
 배 잡고 다시 가서 기생을 불러내어
 비수 빼어 버린 후에 돌아와 대장 되고
 만고명인 되었으니 나 본래 문관이라
 무변과 다르기로 너를 도로 보내는 게 이것이 비수로다
 내 본래 영남 있어 선비의 즐한 몸이
 이천리 기생 실고 천고에 없는 호강
 끝나게 하였으니 험기하고 서울 가면
 분의에 황송하고 모양이 고약하다
 부디부디 잘 가거라 다시 볼 날 있으리라
 군산월이 거동보소 깜짝이 놀라면서
 원망으로 하는 말이 버릴 심사 계셨으면
 중간에 못하여서 어린 사람 호려다가
 사무친척 외론 곳에 계발물어 던지시니 이런 일도 하나있가
 나으리 성덕으로 사랑이 배부르나
 나으리 무정기로 풍전낙화 되었구나
 오냐 오냐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여

십리만 가졌더니 천리나 되었구나
 저도 부모 있는 고로 원리한 심회로서
 웃으며 그리 하오 눈물로 그리 하오
 효색은 은은하고 추강은 명랑한데
 홍상에 눈물 내려 학사두발 희겠구나
 승교에 담아내어 저 먼저 회송하니
 천고에 악한 놈 나 하나 뿐이로다
 말 타고 돌아서니 이목에 삼삼하다
 남자의 간장인들 인정이 없을소냐
 이천리 장풍유를 일조에 놓쳤구나
 풍정도 잠간이라 흥진비래 되었구나
 안변원이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무정하오
 관관사도 무섭던가 남의 눈이 무섭던가
 장부의 헛된 간장 상하기 쉬우리라
 내 기생 봉선이를 남북시켜 앞세우고
 철령까지 동행하여 회포를 잊게 하소
 봉선이를 불러드려 따라가라 분부하니
 자색이 옥골이라 군산월이 고은 모양
 심중에 깊었으니 새낫보고 잊을소냐
 풍설이 아득한데 북천을 다시 보니
 춘풍에 아는 꽃이 진흙에 구르다가
 추천의 외기러기 짝없이 가는 이라
 철령을 넘을 적에 봉선이를 하직하고
 에꾸즌 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이별이라
 조히 있고 잘 가거라 다시 어찌 못 만나랴
 남여로 내 녀오니 북도산천 끝이 난다
 서름도 지나가고 인정도 끝이 나고
 풍류는 끝나고 남은 것이 귀흥이라
 회양에 중화하고 금화 금성 지난 후에
 영평읍 들어가서 철원을 밟은 후에
 포천읍 숙소하고 왕성이 어디매뇨 귀흥이 도도하다
 갈 적에 녹음방초 올 적에 풍설이오
 갈 적에 백의러니 올 적에 청포로다
 적객이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술 먹고 마룻 타고 풍월도 절로 나고
 산 넘고 물 건너며 노래로 예 왔구나
 만사여생 이 몸이오 천고호걸 이 몸이라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반가워라
 중천에 솟았으니 귀흥이 높아 있고
 만수에 상화 피니 설상이 춘광이라
 삼각에 재배하고 다락원 들어가니
 관주인 마주 나와 우름으로 반길시고
 동대문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강할사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올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 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일촌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쁠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내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되야 남자를 부러말고
 이 내 노릇 하계되면 그아니 상쾌할가

죄인 신분에서 벗어난 화자는 군산월과 재회하여 사랑을 나누고는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온다. 화자는 마지막까지 거만한 태도를 놓지 않는데 귀양 생활을 일장춘몽으로 표현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남자의 천고사업'을 다하고 왔다고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저 강호에 편하게 누워 태평하게 노는 것이 제일이라 하는 말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유배 가사로, 작자가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이조판서 서기순(徐箕淳)의 비행을 논척(論斥)하다가 반대파에 몰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이 작품은 그 유배생활로부터 방면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읊은 가사이다. 내용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령을 받는 신세, 서울로부터 북관(北關)까지 가는 유배과정, 북관에서 그 곳 수령의 융숭한 대접과 칠봉산(七峯山)구경 및 기생 군산월(君山月)과의 사랑, 북관에서부터 유배지 명천까지 이르는 과정, 명천에 당도하자마자 방면된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강호·태평 등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만의 특징은 유배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당당한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북천가」는 작가가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후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경험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이 올린 상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 복귀로의 열망을 노래하는 대신,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풍류와 여유로움, 흥취를 노래하며 자신의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당시 사대부들의 비난을 의식하여, 작가는 사대부의 체면을 앞세워 풍류 생활에 대한 거부와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